MAR 1 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__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67 1982년3월9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March 9,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김일성은 사죄하라"
최홍희씨 집앞서 데모
분노한 교민들 규탄결의문도 채택

◇각종 패말과 프라카드를 든 교민들이 한인회관 앞서 전두환대통령음모사건과 북한세력의 침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운데서 이병권 체육회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6일 하오 3시45분께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3.1절 기념행사를 마친 토론토교민 약 30명은 미시사가시 미시사가·로드 1470 번지 소재 최홍희씨 집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암살주범 김일성은 만천하에 사죄하라」「최홍희는 자수하라」는등 패말과 프라카드를 든 데모대들은 이병권 대한체육회 캐나다 지부장과 변의섭 코리아타운번영회 부회장의 선창에 따라 전대통령살해 음모사건과 교민들의 북한방문등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친 후 약30분만에 자진해산했다.

이날 최씨집 차고는 열려 있었으며 안에는 최중화가 타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벤츠(SKZ 451) 1대가 있었다.

3시 51분께갑자기 진밤색「오디 4천」세단이 클락숀을 울리며 데모대사이를 뚫고 최씨 차고로 들어간후 스위치를 눌러 차고문은 자동적으로 닫혔다.

차안에는 최씨의 장녀로 짐작되는 여자 1명이 탔는데 최씨로부터 데모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으로 보였다.

지난 2일 미국여행서 돌아와 최씨는 이날 집에 있었다.

차고 문이 닫힌 수분 후「위급」(?)신고를 받고 3대의 경찰차가급거 출동, 평화적 데모를 지켜보았으며 경찰관 1명은 도로에서 30m속에있는 최씨집 안쪽으로 향했다. 경관이 닥아가자 안에서는 기다렸다는듯 문을열어 주었으나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데모대가 해산한지 2분만에 집안에서 다시나온 경찰관은"미스터·최를 만났다"고만 말하고 일체 언급을 피했다.

이보다앞서 이날 한인회관에서는 63회 3.1절 행사직후이체육회장의 제의로 음모사건과 토론토내 공산세력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140명의 교민들이 박수로 채택한결의문은(1)음모사건이 우리가사는 토론토에서 발생한것에 대해조국에 송구스럽다. 이와같은 북괴흉계를 전교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2)1.22전두환 대통령의 평화통일방한 제의를 다시 한번 지지한다. (3)토론토에서 벌어지고있는 해외교민 남북가족찾기, 북한관광단, 모집등은 남북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도움 안된다는 것이다.

결의문 채택후 약50명의 교민들은 패말을들고 회관정문앞으로 나가 이회장의 선창에따라 각종 규탄구호를 외쳤다.

이광경은 서울의 MBC및 KBS—TV보도반에 의해 녹화, 인공위성을 통해 서울로 송신됐다.

모든패말과 프라카드는 한글로만 준비했고, 캐네디안 뉴스미디아는 나오지않았다.

◇한인회관앞의 상징적 시위에서 직성이 안풀린 교포들은 차를 나눠 타고 미시사가·로드의 최홍희씨 집으로 달려가 시위를 벌였다.

한국프로야구
27일시즌오픈

(서울6일=연합) 한국프로야구는 오는4월27일부터 9월16일까지의 금년도 시즌에 총240게임을 갖기로 확정했다.

금년부터 치작되는 한국프로야구는 240게임을 둘로 나누어 전, 후기리그를 벌인후 각기 승자끼리 코리안 시리즈를 벌인다.

서종철 코미셔너에 의해 발표된 82년 스케줄에 의하면 6개프로팀이 홈·앤드·어웨이 방식에따라 40게임씩 갖는다.

그러나 인천의 삼미·수퍼스타즈나 대전의 OB 베어즈는 운동장 시설보수공사로 홈·게임을 당분간 다른도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6개 프로팀의 명칭과 본거지는 다음과 같다.

MBC드래곤즈(서울), 롯데 자이언츠(부산), 해태타이거즈(광주), 삼성라이온즈(대구), 삼미 수퍼스타즈(인천), OB 베어즈(대전)

테너 유인씨 베르테르역맡아

테너 유인씨가 토론토시립오페라단의 봄맞이공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주역인 베르테르역으로 출연한다

10. 11일 양일간밤 8시 센테니알기술학교(배더스트×하보드)에서 벌어질 동공연의 입장료는 $1씩이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 찬 영
변 호 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회장에 함의현씨
올림픽후원회 작업착수

◇함의현씨

지난25일 구성된 88올림픽후원회는 지난1일 시내 아리랑식당에서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후원회장에 함의현씨를 선출했다.

88년 올림픽까지 6년간 존속할 후원회는 15명의운영위원중 박인순, 장순채, 이병권, 차선경, 박주삼, 원영신씨등 6명을 뽑아 운영세칙, 후원방법등을 결정토록 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함씨는 토론토에서 상점을 운영,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인회장에 출마하려했다가 박인순씨가 나오자 곧 양보, 박씨가 경쟁자 없이 당선되도록 했었다.

한인단체에 관여 안하던 함씨는 지난달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수락했고 이번에 올림픽후원회 의 중책을 맡았다.

72년 토론토에 이민, 부인과 사이에 2남2 녀를 두고있다. 학교시절 럭비선수였다는 함씨는 체육행사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점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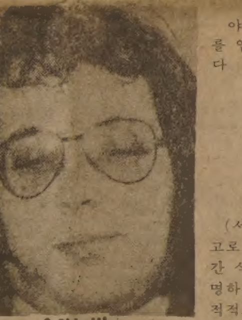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골프장비 전시회 J.C. 골프대리점

골프용구도산매 대리점 J.C골프·엔터프라이즈(대표 정정홍)는 지난 2일 토론토공항 근처 캐라·인 호텔에서 미국 보우드회사골프제품 전시회를 가졌다.

캐네디안 뉴스맨등 20여명이 참가한 이 전시회에서 보우드회사 관계자는보우드 제조 골프장비의 우수성을 설명했다.「J.C.골프」는 보우드회사 캐나다 대리점이다.

야노버 보석 재판 연기
오는 3월15일로, 수사장기화



◇야노버

8일 상오 온타리오 최고법원은 전대통령 암살음모사건에 관련 체포된 찰스·야노버(36)의 보석 청원공판을 심리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5일로 공판을 연기하고 야노버의 공판내용보도를 금지했다

야노버는 브라운색 콤비를 입고 법정에 호송돼왔다

재판은 자주 연기, 수사는 장기화됐다

한국일보·토론토
533 2361

식물인간 4년만에 소생
서울의 인여인 의학계 화제

(서울6일=연합)교통사고로 머리를다쳐 지난4년간 식물인간으로 생명을연명하던 여인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다.

서울의 가정주부 인대주(33)여인은 78년8월 자전거를타다 택시와 충돌, 혼수상태에빠져 인근 병원에 이송된후 8번에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소생의 희망은 거의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당시부터 인여인을 관찰했던 한양대의대 부속병원 유용학 박사는"인여인의 경우처럼 오랫동안혼수에있다 깨어난예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인여인과 비슷한 상태에 있던 유기춘 전문교장관은 최근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못하고 숨져 인여인의경우는 특히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imited
각종주식·유가증권·선물(금·은)등
투 자 상 담
●361－3428 강 상 욱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해 명 서

본지 3월5일자 전대통령 암살음모사건과 관련 체포된 마이클·채롤의 보석허가시 접촉금지대상인물 16명중 5명의 교포들 명단이 발표된것은 전체교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읍니다.

원래 법원에서는 이들 명단의 공개를 금지했으나 일부지상에 5명의 교포도끼어있다고 보도됨으로써 허황된 듯 소문이 꼬리를물고 일어나, 한인사회내에 불신과 분열의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믿어 본지는 일단 한인교포 명단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접촉금지 대상자란 이 사건과 확실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접촉함으로써 재판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재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직제 관련이없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일씨와 김치백씨는 명단이 공개됨으로써범인들과 직접 관련된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본지 기사작성상의 오해에서 나온것으로 깊은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1982년3월

민중신문사

춘계 대방매
(NORITAKE DINNER SET)

*토론토 내에서 EATON'S와 SIMPSON'S그리고 저희 AMIK 세곳에서만 특별히 작년 가격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판매하고 있읍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작년세일가격＋5%OFF 합계 작년가격의 35%OFF이니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구매 하세요.

*기타 많은 NORITAKE제품 세일 중입니다. 일차 왕림 하시어 무엇을 싸게파는지 구경오세요.

AMIK CRAFT SHOP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Sheppard의 Sheppard Centre내)
전 화 : 221－5990 Mrs.고

종 합 보 험

김 홍 람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3·1정신의 숭고한 이념기려

독립정신으로 한인교포사회 발전에 앞장서야

한인회주최로 기념식및 영화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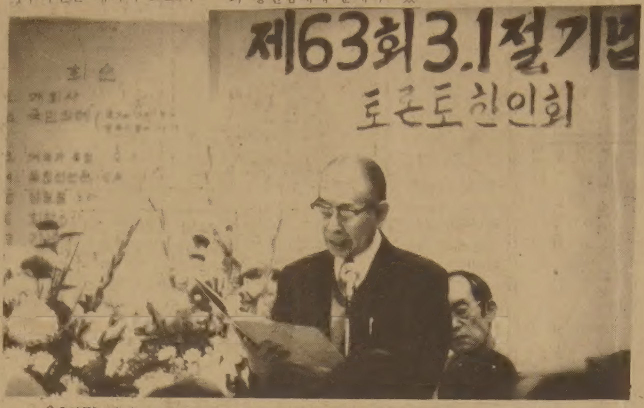
63주년 3.1절기념식이 6일하오 1시 한인회관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토론토 한인회가 마련한 이날기념식에서 최기선 옹의 독립선언문 낭독에이어 박인순 한인회장은 「3.1 정신과 이민생활」기념사를 낭독했다.

서금찬 목사의 3.1절 회고담에 이어 함필용옹은대한민국및 토론토 한인사회 만세삼창을 선창, 140명 교민의 만세소리가 한인회관 강당을 넘어 밖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이상훈총영사와 이처관씨는 기념사에서 각각 이번 전대통령 암살음모사건에 언급하고 캐나다의 공산세력 침투를 경계했다.

이씨는 전 박정희대통령부인 육영수여사살해범 문세광은 재일교포였고 이번 미수사건은 캐나다 교포가 시도했다는 점에서 교포들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3.1절 기념식에서 최기선옹(78)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뒤에는 이상훈총영사)

관은 말했다.

런던한인회 새 집행부구성

(런던—강상권지국장)지난 2월 새로 회장을 선출한 런던지구한인회는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회장 : 배동빈, 부회장: 조정희, 총무 : 장복인, 체육: 정동운, 재무 : 신경자, 교육 : 정준철, 섭외 : 강상권, 청년 : 홍원기, 한글학교장: 홍석재, 노년회 : 이용태.

나이야가라폭포 위에서

조 정 대 (문협회장)

한 달포쯤 벼르다가
아집((我執)으로 얼룩진
내 헌 영혼을 싣고 떠나던 날은
통 잠이 오지 않았읍니다.

호수가 넘치는 폭포소리
심연의 호수가 다 비워지는
폭포소리를 들으며
차 추렁크 속에 꾸겨넣고 온
때묻은 나를 미련 없이 버리면
홀연, 나는 공중에 뜬 한 마리의 새가 되고,

아슬한 강변 계곡 위를 날아
떠내려가는 나를 따라
한참 가다 보면 만나는
온타리오 호수의 검푸른 넓은 가슴.

진실로 나를 사랑함은
내가 나를 아낌없이 버리는 일임을,
그래서 더불어 죽어 다시 태어나는 일임을.

내 몇천번을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되려나,
가장 은밀한 거처(居処)인
타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꽃으로 태어나려면.

韓國政府 활력넘치나 民主主義변화는 적어

"뉴욕타임스", 全대통령1年 特輯

〈뉴욕타임스〉는 전두환대통령의 청와대재임 1년을 평가하는 특집을 4일자에 실었다.

NYT지는 이 특집에서 전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활력에 넘쳐있으나 민주주의로 향한 변화는 적다고 평했다.

이신문은 전대통령이 집권한이때 한국은 안정을 되찾았으며 우방국으로부터도 신임을 얻기시작 했다고 지적했다.

전대통령의 보좌관중 키멤버인 허화평, 허삼수씨등은 군인출신이지만 주변에 있는 유능한 민간인및 저명한 학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지는 전대통령이 당면한 과제중의 하나는 봄학기가 닥친후 야당의 반대및 학원내의 소요사태며 이문제에 대해 관용을 취하면 통치력이 약화될지도 모르며 만약 강한 자세로 나가면 일부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정국의 안정을 원하고 있기때문에 이문제만 적절히 해결하고 경제성장만 성공시킨다면 전대통령은 계속 모든것을 장악할수있을것 같다고 내다보았다.

어버이의 권리와 의무

부모의 윤리기준 영향커

부모는 자기보호하에 있는 자녀의 권리를 어느정도 침해할수 있는가? 자녀의 권리주장은 그들이 성숙해 간다는 표시인가? 이것들은 모든 부모들이 처하게되는 딜렘마이다.

부모의 권리오용이나 남용은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미쳐 커서 안하무인격인 망나니가 되거나 혹은 온순하게 길들여진 복종만하는 어른을만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자녀를 길러야 하는가? 이문제에대해 부모들은 물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양 극단을 살펴보면 먼저「권위주의자」를 들수있다. 이들은 압제적으로 자녀를 다스리며 독단적으로 규율과 행동지침을 결정, 무조건 자녀들에게 따르게 한다. 잠자는 시간부터 친구교제까지 모든것이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한다.

다른 극단은 소위「관대주의자」들이다. 권위주의자들이 뜻하는 관대함은 단순히 자녀들을 아무런 간섭없이 자라게 내버려 두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방임이나 무관심이 진정한의미의「관대함」은 아니다.

획일적이고 엄격한 규율로 가정을 다스리는것은토론과 의논을통해 가사를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방법보다 훨씬 용이하다. 그러나 이런 압제적인 가정분위기는 성격적으로 많은 결함을 가진 자녀를 배출한다.

흔히 틴에이저와같이 정신적으로 성숙치못한 나이의 자녀들은 동류집단(Peer Groop)압력에 쉽게 굴복한다. 즉 동료들의 가치관, 언행, 겉치장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그대로 따른다. 그렇지않으면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달리 부모들도 그들의 세대와 직업에따라 그들나름대로 동류집단을 형성, 거기에 준하는 가치관과기대되는 행동을 위반하지않으려고 한다. 여기서 부모와 자녀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동류집단압력(Peer Group Pressure)이란 단어는 좋지않은 어감으로만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압력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이들의 취미와 태도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환경에 근거를두기때문이다.

문제가 되는것은 부모가 그들의 윤리기준에 일치하는 가치기준을 설정, 그들의 자녀에게 무조건 따르게하는것이 그들의 권리나 의무라고 생각하는것이다. 이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주위세계와 환경을 분별하고 이해할수 있게가르치며 그 세계에 대처할 수있는 지혜와 표준을 확립할수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이다. 결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2重 國籍制」 실시 보류

"科學기술개발 위해 유아·大學교육과정 개편"

손제석秘書官, 교포 敎授들과 간담회

한국정부는 이중국적제도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사대사상 등을 비롯한 부작용 때문에 보류한것으로 밝혀졌다.

과학 기술교육 시찰차 방미한 손제석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은 교포교수들과의 간담회 에서 한국정부가 이중국적 문제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같아 그실시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손비서관은 정부는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개발과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동시에 교육시설을 보완할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미 한인교육기관 대표들과 가진 오찬회에서 정부는 재미교포들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있다고 말했다.

한국 전투기 생산 아직은 조립단계

(서울 6일=연합)한국은 금년부터 전투기를 조립생산하게 됐다.

서석준상공장관은 5일국회에서 주로 수입한 항공기재로 전투기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1978년 항공산업진흥법을 제정, 항공기 국내생산준비를 해왔다.

한국은 외국항공기 제작회사들과 제휴, 조립의 단계를 벗어난 합작제작에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서장

▲웃음을 데 없는 많은 배우들이 모두 사랑하고 관객과 함께 웃는다.

미행자와 미행당하는자가 사랑에 빠져들고…

모두들 웃었다

모두가 사랑에 빠지고 모두가 웃는다. 언제봐도 활기찬 뉴욕의 맨하탄처럼 발랄하고 매력적인 「They All Laughed」. 미국영화로선 수작이다.

『결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 「오딧세이」사설탐정소의 벤·가자라와 존·리터는 엉망진창의 탐정. 아내의 농탕을 염려하는 남편들의 주문으로 벤은 오드리·헵번을, 존은 도로시·스트래튼을 밤낮으로 쫓아다닌다.

영화는 둘이 둘을 뒤쫓는다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피터·보그다노비치감독은 미행하는 자와 미행당하는 자가 사랑에 빠져드는 과정을 밝은 웃음과 정겨움으로 멋시있게 처리, 부정마저 추하지가않다.

벤과 오드리 그리고 존과 도로시를 중심으로 경쾌한 4중주가 연주되면서 이들을 둘러싸고 알찬 연기진들이 한층 흥을 돋구는데,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히피타입 블레인·노박, 택시운전사라기보다 패션모델이 걸맞는 패티·핸슨 그리고 컨트리송가수역의 콜린·캠프등이 군침도는 맛있는 소품을 만드는데 더도 덜도 없이 깜찔한 양념 구실을 하고있다.

특히 안경을 낀 멍청하면서도 천진난만한 존이 도로시의 미에 홀딱 반해 주체못하는 표정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고 나이들직한 벤과 오드리의 사랑이 가슴을 촉촉히 적신다.

오드리는 이제 많이 늙었지만 고고한 아름다움이 여전하고 도로시는 플레이보이자의 플레이메이트로 나올만큼 불꽃같은 미를 뿜낸다.

도로시·스트래튼은 미와 연기로 막 꽃이 피려할즈음 남편에게 권총으로 사살됐는데 이영화를찍으면서 피터·보그다노비치와 사랑케돼 둘은 결혼할 예정이었고 그래서 영화는 그녀에게 바쳐졌다. 피터·보그다노비치는 티없는 웃음속에 소금같은 눈물도 쉬울줄 아는 재주꾼으로 오드리를 보내는 벤의 두눈이 일품이다. 론픽처스 작품으로 프랭크·시나트라의 「뉴욕 뉴욕」등 흥겨운 음악도 많이 나온다. 편안히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영화다. 등급PG로 뮤직홀에서 상영.

"더이상 暗殺공포 속에서 살기 싫다"

비이지스3兄弟귀국

팬들 폭발적 인기에도 "우선 살고 봐야지"

항상 警護員경비 刑務所같은생활 싫증
精神異常者총에 죽은 레논死亡 큰충격

베리·깁, 모리스·깁, 로빈·깁등 깁3형제는 높은 담장에 항상 붙어다니는 경호원과 경비용 개로 마이애미 생활이 형무소 생활같아 지겹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2세교육을 시키고 싶지않고 또한 미국에는 유명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목숨을 노리는 정신이상자가 많아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이주이유를 설명했다.

영국에 이주한후 맏형인 베리는 부인과 3자녀와 함께, 테니스코트, 수영장이 딸린 80에이커 크기의 대형저택에 살고있으며 둘째인 모리스는 부인과 두자녀와 함께 스케이트장까지딸린 저택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세째 로빈은 부인과 이혼해서 현재는 뉴욕에 살고 있지만 곧 영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현재 미국에 남아있는 형제는 막내인 앤디·깁(비이지스 멤버가아님)뿐이다. 앤디는 TV드라머「달라스」에 출연중인 룸메이트 빅토리아 프린시펄과 함께 캘리포녀주에서 살고있다.

「Stayin'Alive」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록그룹 「비이지스」3형제가 범죄자가 우글거리는 마이애미를떠나 영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존·레논이 정신이상자의 총에 맞아 유명을 달리한후부터 암살의 위협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미국을 떠난 「비이지스」3형제 위로부터 배리, 로빈, 모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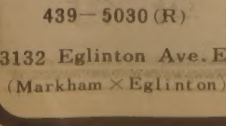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장학생 선발공고

Scholarship for Korean Students

본재단은 제4차 장학생을 선발코저 하오니 많은 학생이지원하기를 바랍니다.

1. 대상자 : 1982—83년 학년도 대학교, 전문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수학할 학생.
2. 선발분야및 인원 : 가. 일반분야 4명, 나. 신학생 1명
3. 장학금액 : 일인당 $1,000
4. 구비서류 : 가. 지원서(본재단 소정양식), 나. 최근2년 성적증명서, 다. 학교선생 2인 추천서, 라. 한국인 일인 추천서, 마. 자기소개와 장래의 포부를 기초한 수필, 바. 6개월안에 찍은사진 4매

※ 주의사항 : 모든서류는 영문으로 기재할것(한국인 추천서는 제외) 원본과 사본 일매를 제출할것.

5. 신청마감 : 1982년4월10일
6. 원서지급요청및 서면문의(Inquiry)

Korean 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 C/O Dr Y·Lee
30 Humbertown Centre, Suite 9, Islington, Ontario, M9A 3T7

전화 : 233—9301(이영일), 789—7544(문인식)

캐나다한인 장학재단
Korean 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
이사장 : 구 상 회

알 림

안녕하십니까?
교민여러분의 Tax-Planning 경영상담및 제반회계업무에 있어서 보다신속한 써비스를 위해 금번 2월1일부터 개업한 김명숙 회계 사무소(Kim & Associated)와 기존 전병웅 회계사무소(Ben's 어카운팅)가 통합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주소 : 484 Bloor st. W.
(강찬영변호사사무실 내)
김 명 숙 회 계 사 무 소

◎전화 : 537—3171(B)
669—2710(R)

김명숙 · 전병웅 배

범죄로 골치앓는 뉴욕

뉴욕시내에서 강도를 만날 확률이 크게 늘어 이제는 강도를 만나는 일이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게 됐다.

강도를 만날 경우 운이 좋으면 돈만 뺏기게 되겠고, 운이 나쁘면 돈만 아니라 총상이나 자상을 입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존 우드라는 장래가 촉망되는 외과의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한 블럭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강도에 의해 살해되었던 것이 바로 단적인 예다.

뉴욕시에서의 범죄율은 시간이 갈수록 줄기는 커녕 전해의 기록을 깨뜨려 가고 있는 형편이다. 범죄율자체도 문제지만 범죄의 방법이 점차 잔인해지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강도에 따른 사상자수는 범죄율의 증가를 앞서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범죄율의 증가가 가정의 파괴, 빈곤, 그리고 사람들의 좌절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욱 직접적인 원인은 연간 11억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경찰에서 감옥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 자체가 이미 한계에 이르러 구멍이 뚫렸기 때문인 것으로 많은 관계자들은 믿고 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난폭한 범죄행위 자체가 일정그룹의 생활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점점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후에도 사법제도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계속 건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경우가 오히려 희소할 정도인데,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범인이 체포된 후 유죄판결을 받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나오는 경우는 중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의 1%를 겨우 넘어서고 있는 정도라 한다.

범인이 설령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십중팔구는 교도소로 가지 않고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재범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법원당국이 인권에 관한 조항을 확대해석하는 바람에 신속하고 엄한 형벌이 범죄인에게 내려지지 않는 대신 집행유예, 선고유예, 보석, 정신감정등 범죄인을 사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발생건수 늘어나고 숫법 잔인해져

사회적 요인 · 형사사법제도가 문제

74년도에 뉴욕시내에서 약 52만 건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80년도 한해에는 37%가 늘어난 71만건의 범죄가 늘어난 셈이다. 경찰기록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 살인사고는 17%, 강도사고는 29%, 도난사고는 33%, 차량도난사고는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범죄율이 이렇게 증가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등에 기인하여 경찰의 범인체포수는 줄어들고 있는 한심한 실정인데, 74년도에 24만의 범인이 체포되었으나 80년도에는 27%가 줄어든 18만명에 불과했다.

체포범인수의 감소는 뉴욕시 경찰관 총수의 감축과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74년도에 3만1천명이던 경찰관수가 80년도에는 무려 29%가 줄어든 2만2천명이 되었다.

차량도난사고도 전보다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80년 한해동안 모두 10만건의 도난사고가 뉴욕시에서 신고되었으나, 경찰은 불과 9천1백명의 범인밖에는 체포하지 못했으며, 게다가 차량도난혐의로 감옥에까지 간 범인수는 뉴욕주 전체에서 19명밖에 안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뉴욕시의 한 수사간부는 이러한 한심한 실정을 비꼬는 듯, 『범죄를 저지르고 싶으면 자동차를 훔치는 것이 최상의수단인걸요. 나자신도 도둑들이 왜 자동차를 훔치지 않는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감방에 가지않고 거뜬하게 해 치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요』라고 토로하고 있을 정도이다.

뉴욕시 경찰은 이제 사소한 강도사건 따위는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정부의 사법 치안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범죄예방대책을 세우려하는 것이다.

▲「칼빈클라인」진바지를 날개돋히게한 광고모델 「브룩쉴드」양.

교민의 벗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乳房작으면 不感症인가

크면 외관상 보기좋을뿐…機能과는 無關

性的흥분쉽고 快感도 強해

男性호르몬 旺盛하게 분비

옛날에는 유방이 큰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우리네의 여인들 한복은 모두 유방을 꽁꽁 동여 매었었다.

그러던것이 서구문명의 덕택(?)으로 유방이 여성을 더욱 섹시하게 보이게 한다는 사조가 흘러서 노브러까지 유행할 정도다.

즉 유방이 큰것이 섹시하다는 생각은 큰유방일수록 섹스에 민감하고 반면에 작은유방은 민감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졌다.

그래서 오늘날 작은유방의 여인은 불감증이라는 관념이 남녀모두에 널리 퍼져있는 실정이다.

하기는 여성의 유방은 접촉자극에 매우 예민하다. 리드미컬한 압박은 성감을 드높인다. 특히 유두는 가장민감하며 여성이 유방에 주는 자극은 동시에 자궁이나 성기에 전달된다.

때문에 성기에의 자극보다는 유방에의 접촉, 특히 키스나 흡인을 더좋아하는 여성들도 있는것이다. 물론 이런사실은 다분히 여성의 모성애적 심리에도 영향을 받고있다.

그러나 반대로 유방의 자극으로도 성감이 높아지지않는 여성이 더러있다. 흔히 이런 여성들은 유방이 작은 여성 이라고들 오해하고 있는것이다. 유방의 발육이 나빠 작은 여성은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하고 반대로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한 여성들에 많다.

그런데 이남성호르몬 이라는것은 이성을 의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성호르몬없이는 사람은 결코 이성을 의식할수가 없고 성욕을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남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여성은 성적으로도 흥분하기 쉽고 쾌감도 상당히 강하다.

성감의 기본이 되어있는 것은 대뇌의 성욕중추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흥분 시키거나 성생활은 즐겁고 좋은것이라 생각하면 성욕을 느끼게도된다.

그러기 때문에 유방의 대소와 성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유방이 작은 여성과큰여성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작은 타이프의 여성쪽이 성적으로 적극성이있고 시간적으로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많은듯하다.

그런데도불구하고 「내유방은 작고 빈약하다」고 비관만하고 있으면 그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성욕중추나 신경의 반응이 억눌려서 성감의 발달이 둔해진다.

유방이 작은 사람일지라도 「작고도 근사한 유방」이라는 자신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흔히 유방에의 애무에 대한 반응이 약하다고해서 불감증 운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그 애무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수가 많다.

즉 유방에는 신경이 적고, 그신경은 주로 유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유방전체를 아무리 열심히 애무를해도 별로 성감은 드높아지지 않는것이다. 유두에대한 손끝이나 손바닥으로의 애무는 아주 효과적이다.

가끔 유방이 선천적으로 작은 사람은 유전성인 경우가 있다. 이런선천적으로 작은 유방도 영양의 힘으로 어느 정도 발육시킬수도 있고 가슴의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다.

진정으로 자기 유방이 작아서 열등감을 느끼는 여성이라면 체조, 수영, 발레등의 운동이나 몸을 팔과 발끝으로 받치고 팔꿉을 굽히는 운동같은것을 해서 유방의 발육을 도모해볼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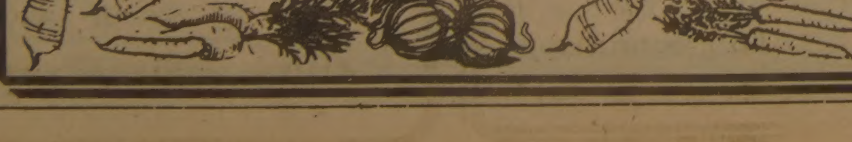
결코 유방에 어떤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법등은 피하는게 좋다. 즉유방은 그 외관보다 기능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젖,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봉 학 농 장
(전화 :1-775—6256)
긴 겨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첫주(3월4일)부터 매주 다음장소에서 무우, 김치, 깻잎, 마늘쫑, 짠무우 판매를 실시합니다.
수요일 : 오후7시(700 Ontario St. 셔본×블루어)
오후9시(5 Capri Rd. EAST MALL)
목요일 : 오후6시(55 Emmett앞 제인×웨스톤)
오후7시30분(521 Finch Ave.W. 배터스트×핀치)
오후8시30분(7411 Yonge St. 영×스틸)
금요일 : 오후6시(2441 Finch Ave.W. 핀치×웨스톤)
오후8시(2700 Lawrence Ave.E. 미들랜드×로랜스)
오후9시(45 Green Crest 마캄×로렌스)


학 생 모 집
1982년도 제1학기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신과
정 원 : 신과40명
자 격 : 고졸이상인 세례교인에 한함.
수 업 료 : 신과 $60
수업일시 : (예년과 달리)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 1시까지
수업장소 : 252 Bloor St. W. #3—105
개강일시 : 1982년3월13일(토)오전9시
원서교부및 교부처 : 1982년2월20일~3월15일까지
Lee's Printing(2157 A Weston Rd. 244—2301)
기 타 : 재학생은 개강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캐나다노회직영
칼빈신학교장 : 계 화 삼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軍服務 84년부터 30個月로

政府、國會답변 陸·海兵、年1個月씩 단축

"和合위해 더욱幅넓은 赦免 北傀 國際테러행위 대책은…" 질문

국회는 3일하오 本會議를 續開, 劉彰順국무총리등 관계각료들을 출석시킨가운데 정치 외교 안보분야에대한 對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陸完相(民韓) 玄敬大(民正) 朴在旭(국민) 愼順範의원(議同)등이 나섰는데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치활동규제자의 해제, 地自制조속실시, 정치의活性化, 언론기본법 개정등을 요구했다.

◇3일 국회에서 劉彰順국무총리(아래)가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위는 丁來赫의장.

陸完相의원은 질문에서 『정치활동이 규제된 舊政治人들이 실의에 젖어 生業도없이 지내는것으로 듣고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근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고 물으면서 규제해제를 촉구하고 『서울 釜山 大邱 仁川등 재정자립度가 평균90%이상인 대도시만이라도 地自制를 먼저실시할 용의가없느냐』고 질문했다.

그는이어 『최근 정부가추진중인 고급공무원 特採제도의 副作用으로 上下간에 違和感이 조성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고 따졌다.

陸의원은 최근 캐나다에서 적발된 全斗煥 대통령의危害음모사건과 관련▲北傀의국제테러행위 근절대책▲일부교포의 고질적 反韓행위방지책에관해묻고 韓日관계에 대해 經協이 요구대로 실현안될경우의 대응책, 무역赤字개선▲뉴저팬호텔화재死亡者에대한 보상대책을 추궁했다.

朴在旭의원은 『프랑스의미테랑정부가 對북괴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것임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프랑스정부를비롯한 西歐의 사회주의세력대두에 따른 정부의외교적 대응책을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안보문제에서 『3년이란 軍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는여론이 높다』며 복무기간단축의사를 물었다.

그는 또 『앞으로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 劃期적인 중앙정부권한의 지방관서로의 이양이 있어야한다』고촉구하고 『최근 모 정부부처기관에서 직원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50세이상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표제출을 강요하는듯한 행위가있었다는 말을들었다』면서 정부당국의 高齡者기피정책을 추궁했다.

愼順範의원은 『만일민주통일당안이나 20개 示範사업을 北韓측이 수락했을때 대응책이 마련되어있으며 南北간군사력의 不均衡이 현격하다면 그위험부담을 충당할수 있는 對策은있는가』고추궁했다.

그는 또 『이번에 光州사태관련자들의 特赦에이어 좀더폭넓은 사면조치로 국민단합에 일대전기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劉彰順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정부는 80년대도약과 개발사회의 구현을 위해 각종 규제와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 정의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본격적으로 개선점을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이와관련, 경제, 사회, 금융의 자율화로 民間간의정당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예산의 낭비요인을 除去,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零點기준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할것을 준비중에있다』고 말했다.

劉총리는 또 ▲복지사회분야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선정과 보호수준을 합리화하겠으며 ▲교육문화에서는 사회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천하고 대학입시제도를 보완하겠으며 ▲민원 일반행정분야에서는 諸般절차의 간소화와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認許可제도를 검토하는 등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인의 제거와 각종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盧信永외무장관은 뉴저팬호텔사건 보상문제에 언급, 『호텔측이 제안한 개인당 2천만엔보상금에 대해 遺族일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駐日대사관 총영사가 입회하여 우리보다 많은 피해자보상이 있을경우 추가로 요청할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다』고 말하고 『오늘 일본의 언론은 호텔측이 내외국인 모두 2천만엔씩 지급키로 결정했다는것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李光杓문공장관은 『언론기본법은 언론의자유와 公的책임을 균형있게 갖도록하는것을 입법취지로하고 있으며 지난1년간 큰문제점이 발견되지않았기때문에 정부는 이의개정을 고려치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國保委개혁과정에서 淨化퇴직한 사람들의就業은 81년 8월31일 이미 해제됐으며 언론인도 이에포함되어있다』고 말했다.

朴贊兢국방장관은 방위산업분야에대한 답변에서 『현 수준은 우리軍의 기본병기의 대부분과 일부 고도정밀병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있으며 북괴와는 대등한 수준이나 80년대 중반부터는 모든분야에서 앞지를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복무기간이 33개월로 되어있는 陸·海兵은 금년부터 1년에 1개월씩 연차적으로 단축해 84년도에는 복무기간이 30개월로 단축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朴장관은 또 韓美군사협력관계는 全대통령訪美이후 보다 확고히 강화됐으며 韓美의 동맹관계는 여러가지 측면으로 보다 발전되어 유사시에 對韓지원도 확고히 보장된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印尼油田개발 7월 試錐착수

韓國코데코에너지社, 美社와 傭船교섭

西마두라海域 油徵 8월께 判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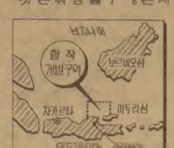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오는7월 인도네시아 西마두라해역의 油田개발을 위해 첫試錐작업에 착수한다.

3일 동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데코에너지社는 작년11월부터 12월까지 西마두라해역 총4천18㎢에 대해 실시한 物理探査자료를 오는 6월말까지 분석, 4개시추지점을 선정하고 오는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추작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코데코에너지社는 시추를 위해 현재 미국의 리딩앤드베이츠와 작업船(定置式)시추선 용선계약을 교섭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西마두라해역은 현재 석유가쏟아지고있는 油田 인접해역으로 석유부존가능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추정되고있는 韓·印尼공동개발 구역이다.

코데코에너지社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개孔을 뚫을 예정인데 1개孔을 최장 3천m까지 뚫는데 45일밖에 걸리지않아 첫시추결과는 빠르면 8월중에 판가름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유전개발을 위해 코데코에너지社를 설립,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와 西마두라해역의 油田을 공동개발하기로 계약을 맺고 시추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탐사및 시추비용이 3천5백만달러에 달할때까지 코데코 에너지社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있다.

이계약조건에 따르면 西마두라해역에서 석유가 나오게 되면 생산원가를 제외한 생산량을 인도네시아가 66%, 우리나라가 34%를 차지하게 되어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하반기주위 대륙붕 제4광구와 제7광구에서 각각 1개孔씩 시추할 계획이다.

全대통령 어제 就任1周

公式行事 일체 갖지않고 平常執務

全斗煥 대통령은 3일로써 제12代 대통령취임1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12代 대통령취임과 관련, 일체 공식행사를 갖지않기로 했다.

취임한돌인 이날 全대통령은 徐錫俊상공장관과 金容烋총무처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신임 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는등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했다.

全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미국방문에 이어 아세안 5개국을 巡訪했으며 1·12및 6·5제의, 1·22민주통일방안제의, 通禁해제와 88올림픽유치등의 업적을 남겼다.

"政治正常化조처"

美·日, 한국大赦免 논평

【워싱턴2日=聯】미국정부는 2일 全斗煥 대통령의 사면단행을 『화해정신의 구현』이라고 환영했다.

제임즈·메나드 미국무성대변인은 이날 특별성명을 발표, 『미국은 화해정신을 구현하고 한국의 정치활동 정상화를 향한 발전적 조치인 한국정부의 사면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東京2日=聯】일본의 사쿠라우찌(櫻內) 외상은 2일저녁 한국정부의 특별사면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日紙 크게報道

【東京3日=宋孝彬특파원】일본의 주요일간지들은 3일 金大中을 비롯한 정치범등 2천8백63명에 대한 [illegible]조치를 크게 보도하고 환영했다.

그는 특히 이번조치가 『全斗煥 대통령의 현 한국정부가 공약해온 국내의 화합을 기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일본외무성도 정식으로 담화를발표, 한국정부의 특별사면을 인도적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환영했다.

정부대변인인 미야자와(宮澤) 관방장관도 『金大中문제에 대한 종래의 경위에 비추어 일본정부로서는 이번 인도조치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危害음모」작년 公館에通報

盧外務, 國際보호協約등 加入추진

盧信永외무장관은 3일 최근 캐나다에서적발된 全斗煥대통령의 危害음모사건에대해 『정부는 작년9월부터 國內外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종 첩보를 입수, 駐캐나다대사와 터론토駐在 총영사에게 통보한바 있으며 캐나다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盧장관은 이날하오 국회본회의에서 陸完相의원(民韓)이 北傀의 국제테러행위介入에 관한 질문에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지난2월24일 캐나다연방경찰의 수사결과를 캐나다정부가사전통보해왔으며 외무부는지난2월27일駐韓캐나다대사대리를초치하여캐나다당국의조치에대해謝意를표하고아직도남아있는殘黨들이체포되어빨리수습되기를희망한다는뜻을 전했다』고덧붙였다. 또2일에도 캐나다정부에 감사의뜻을 전했으며 모든在外공관에 우리僑民에대한 北韓의침투에대해 경각심을 갖고대비토록지시했다고설명했다.

盧장관은 『정부는事態재발에대비, 교민들에대한 선도활동을 강화하는한편 각국과 긴밀히협조하여 외교관등 人과 관한 국제보호협약과 2개 협약에 추가 가입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美A10機 한국 첫實戰배치

26臺중 1陣 6臺

【중부전선○○기지=申鉉鈺기자】『탱크킬러』로 불리는 美공군의 신예근접지원기 A10선더볼트Ⅱ 6대가 3일하오2시 중부전선 ○○기지에 도착, 한국에 최초로 실전배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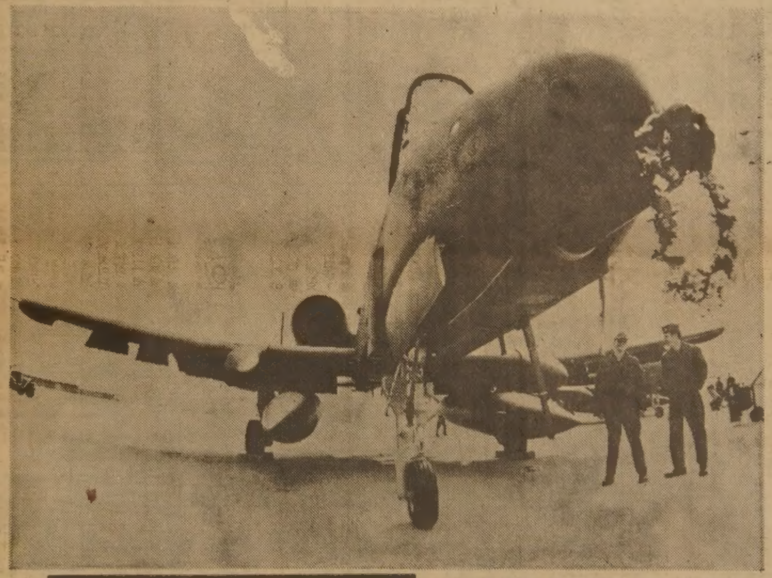
이날 A10기 도착현장에는 周永福국방장관, 워커주한美대사, 위컴한미연합사령관, 尹誠敏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등 한미군고위장성과많은 장병들이 참석, 환영했다.

편대장 유진·마이어 대령이 지휘하는 6대의 A10기는 이날 오끼나와 가데나기지를 떠난지 2시간반만인 하오2시정각 3대의 F5A전투기의 선도를받으며 ○○기지에 안착했는데 6대의 A10기가 환영식장에 진입하는동안 오끼나와 미공군기지에서 지원나온 다른1대의 A10기(조종사 조·쉐버 소령)가 기지를 할공이 저공으로 날면서 배면(背面)비행과 급선회등 묘기를보이며 시범공연을 펼쳤다.

이날 최초로 주한미공군에 도입된 A10기는 오는4월부터 83년3월까지 도착예정으로 있는 18대와함께 주한미공군 제51혼성전술비행단 산하의 신설 제25전술대대로 편성운용될 예정이다.

제25전술대대는 한국동란당시인 지난51년에서 54년까지 한국에 배치되었던 부대로 그후 해체되었다가 이번 A10기도입으로 28년만에 한국에서 재창설됐다.

이부대는 2차대전당시 인도차이나지역을 무대로 폭격임무를 수행, 『맛상의 靑龍』이란 별명을 얻은바있는 전통있는 부대.



最近接지원 A10機의 威容

◇3일 한국에 처음배치된 A10기선더볼트Ⅱ 근접지원기. 주한 美공군은 83년 3월까지 24대를 도입하게 된다. 【鄭在斗기자 찍음】

社會漫評

大감축 大청소

地平線

父子協定이란것이 있다. 무슨 말인가하고 알아보았더니 농사짓는 아버지와 아들사이에 世代교체를 원만하게 하기위한 가족협정이라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먼저 퍼져 최근엔 일본에도 생긴모양이다. 농업후계자가 귀해 농사를 이어받는 아들에겐 아무리 부자간이지만 임금을 보장하고 협업형태로 이익분배를 해줌으로써 離農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농사짓기가 어렵고 싫으면 이런협정까지 생겼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농촌후계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농고 졸업생들에게 정착자금까지 마련해주지만 농촌에머물겠다는 젊은이들이 드물어 골머리를 앓고있는 실정이다. 離農경향은 세계 공통현상이므로 이땅농촌에도 그에따른 어려운 문제가허다하다.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은 그 하나라고 할수있다.

▼농촌을 등지고 너도나도 떠나기때문에 농촌의 빈집이 늘어 81년말 현재 전국에 3만7천2백33동이나 된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嶺南이 제일많고 京畿·濟州가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보존상태를 보면 2만6천1백60동이 불넓거나 허물어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빈집 발생원인은 생활근거지 이동이 38%로 가장 많고, 생계곤란으로 이주한경우가 33%, 가족합류가 19%를 차지하고있다. 도시에선 주택난이 심각한데 물맑고 공기좋은 농촌엔 왜 빈집이 늘고 있을까.

▼내무부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을 세우고 수리, 철거, 영세민입주등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문제는 더 근본적인데 있는 것같다.

▼서독에서는 過疎지대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聚落構造改善사업처럼 農家團地를 마련, 外住를 권장하고있다. 快適한 도시문화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기위해 집단마을을 조성하고 그린·리포트를 통해 엄격히 그 성과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포장 도로를 깔고 교통요건을 개선한다, 경지정리를 한다, 도서관·오락시설을 만든다, 근처에공장을 세운다는등 황폐해졌던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의 새농촌운동을 정부지원차원으로 하는 것이다.

▼主穀自給自足을한다, 잘사는 새마을을만든다, 우리농촌을 기름지게 한다는등 농정목표는 화려하지만 농촌을 살리는 지름길은 농민들의 소득증대, 영농기계화, 농촌여건 개선밖에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자리잡고 빈집이 안생기게 하려면 뭣보다도 농촌수입이 도시보다 적어선안된다. 농사짓는라고 고생하는 농민들이 도시에서 앉아서 돈버는사람보다 수입이 적어 희망을 못갖는대서야 누가 농촌에 남겠는가.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그린·리포트비슷한것이나마 나와야되겠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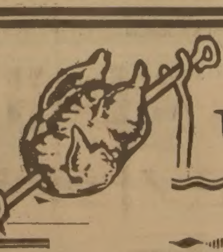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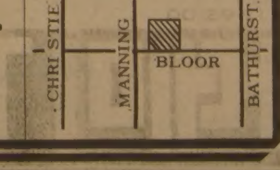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FURS
Paul Magder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내고향통닭집
특별봉사가격

김 밥	$2.95	곰 탕	$3.50
생선초밥	$4.50	설 렁 탕	$3.95
오 뎅	$3.00	빈 대 떡	3개 $1.50
오뎅백반	$3.75	만 두	4개 $1.00
가끼우동	$3.00	에 그 롤	4개 $1.50

658½ BLOOR ST. W.
537—0432 Mrs. Lee



김인규회계사무소
개업안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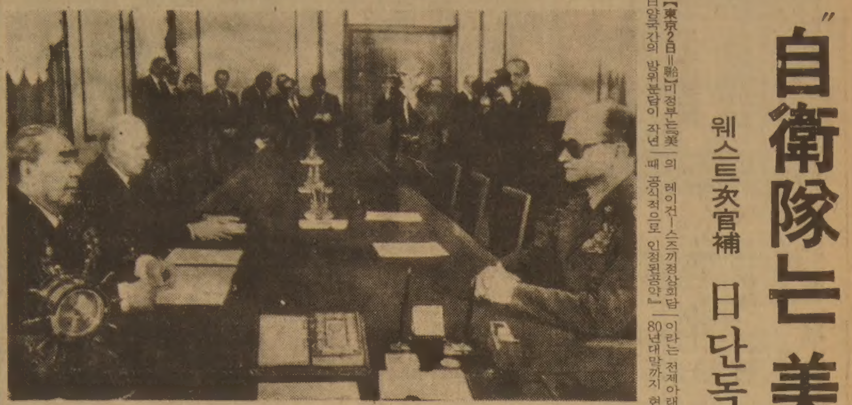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공인회계사
김인규 배

美, 日에 海上방위 強力요구

80年代末까지 1千海里 교통로



◇브레즈네프-야루젤스키對坐 소련공산당서기장겸최고회의간부회의의장레오니드·브레즈네프(왼쪽)와 소련방문중인 폴란드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오른쪽)가 2일 크렘린宮에서 열린 한회의에서 대좌하고있다. 【모스크바3日UPI電送=聯合】

"自衛隊는 美軍보조역"

웨스트次官補 日단독防衛는 기대안해

【東京2日=聯合】미정부는 美·日양국간의 방위분담이 작년 레이건—스즈끼정상회담때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약」이라는 전제아래 일본이 80년대말까지 현재 수준이상의 방위비를 매년투입, 1천해리 교통로방위목표를 달성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일본신문들에 의하면 프랜시스·J·웨스트미국방차관보는 2일 미하원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 일본문제청문회에서 『스즈끼(鈴木)수상이 약속한 1천해리교통로방위를 8년안에 이룩할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미국은 일본이 80년대중에 해상교통로방위능력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미국 원조없이 일본이 단독으로 스스로를 방위할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위대 전력증강을 미국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생각하고 있을뿐 미군에대신하는 것으로는 간주하지않고있다』고 밝혀 미국이 일본의 자위력 증강을 미전력의 보조수단으로서만 간주하고 있으나 아직도 증강의여지가 많아 이를 위해서는 현재이상의 방위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음을 분명히 했다.

美, 카리브海지역 새軍事施設 모색

와인버거美國防

【워싱턴2日AP=聯合】미국은 소련과 쿠바의 개입에 대처하기위해 카리브해지역에 새로운 군사시설건설을 모색하고있다고 캐스퍼·와인버거국방장관이 2일 밝혔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날 의회증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카리브해지역의 몇몇 국가들과 이를위한 비밀협상을 벌이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는 레이건행정부가 카리브해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기위해 협상을 벌이고있는 국가는 온두라스와 콜롬비아일것이라고 보도했다.

"反共세력 波勞組침투"

政府비난 파괴선동으로 權力장악 노려

【바르샤바2日UPI=聯合】폴란드국영TV는 2일 반공극단주의자들이 자유노조에침투, 이단체를 권력장악을위한 파괴활동세력으로 만들려 기도했었다고 비난했다.

국영TV는 자유노조동맹(KPN)이 극단주의자들의 도움으로 카토비체등 최소한 3개성에서 헌법을 가장한 「비밀기구」를 조직했으며 또한 「준군사적조직」을 만들고 反國家선전을 전개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계엄통치자 야루젤스키수상의 소련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온 폴란드신문들은 이날 세계가 2차대전이후 최대의 위협에 직면했다는 부외상 요제프·비에야츠의 경고를 게재했다.

美스티븐즈 議員 西歐蘇가스購入에 美軍철수對應토록

【워싱턴2日UPI=聯合】미상원공화당2인자인 테드·스티븐즈의원(알래스카)은 2일 소련으로부터 다량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 결정한 서유럽에 대응하기위해 33만7천명의 유럽주둔미군을 철수시키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할것을 고려하고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즈 의원은 이날 자신이 소속한 국방 지출소위에 출석한 와인버거 국방장관및 데이비드·존즈 합참의장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익을 돌볼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SS20 미사일 西歐배치 中斷

【뮌헨(서독)2日UPI=聯合】소련은 2일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의장 브레즈네프가 지난11월 서독을 방문한이래 SS20중거리 미사일을 소련의 서유럽지역에 더이상 배치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소련공산당중앙위 국제정보국장 레오니드·자미아틴은 이날 이곳에서 개최된 한 군축세미나에 참석, 그와같이 주장하고 소련이 5일마다 SS20미사일 1기씩을 현재 배치하고 있다는 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의 1일 워싱턴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여론을 오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다.

中共, 정부機構 대폭縮小

中央관리 20만減員

【北京2日UPI=聯合】중공은 2일 ①98개의 각부·위원회및 국무원산하정부기구를 52개로 대폭축소하고 ②중앙정부관리60만명을 40만명으로 20만명감축하며 ③부수상의 수를 크게 축소하는 중공 정권창립33년만의 최대규모의 숙청및 기구축소계획을 발표했다.

중공수상 趙紫陽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상무위원회의에서 중공의 경제·문화·정치를 개혁하기위한 일대혁명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계획의 승인을 요청했는데 전인대상무위가 이를 승인할 것이 분명하다.

美, 83년 軍事借款등 支援

한국에 2억千萬弗

【워싱턴2日=聯合】미국정부는 한국의 미제무기및 군사장비구입을 돕기위해 1983회계연도중 총2억1천1백9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있다고 미국방성의 한 소식통이 2일 말했다.

이 규모는 1982회계연도에 같은목적으로 한국에제공될 1억6천7백40만달러보다 26·6%가 늘어난것이다.

이 소식통은 1983회계연도에 한국정부에 제공될 군사원조중 2억1천만달러는 군사판매차관(FMS)이며 나머지는 국제 군사교육훈련(IMET)과 기타지원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규모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公主무덤 壁畵 네덜란드 그로닝겐대학의 고고학자인 야코브·반·디크교수가 이집트의 한寺院유적에서 발견된 벽화를 살펴보고있다. 이 寺院터는 英國과네덜란드 공동발굴단이 찾아낸 티아공주 무덤의일부다. 【사카라(이집트)2日AP電送=聯合】

올림픽誘致·通禁해제등 과감한開放體制에 自信

—海外言論이 보는 全대통령 治績 1년

제5공화국의 첫 대통령인 全斗煥 대통령의 취임이후 지난 1년에 대해 해외언론들은 安定과 跳躍의 발판을 굳힌 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모아 본다. 【編輯者註】

▲워싱턴·포스트(미국·81·10·4)=全斗煥 정부는 80년9월 발족이후 재빨리 후퇴하는 한국경제에 눈을 돌려 이제 80년의 역전한 국면을 逆轉시키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즈(〃·81·1·31)=全대통령은 독립되고 통일된 강력한 한국을 꿈꾸는 어은 부드러운 성품의 민족주의자이다.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이미지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지도자로서 진지하고 솔직하며 빈틈없는 인상을 풍긴다.

▲월·스트리트·저널(〃·82·1·18)=한국정부는 88년 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함으로써 2개의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고 올림픽은 한국과 소련및 中共과의 직접거래를 위한 커다란기지를 받고있다.

▲朝日신문(일본·82·1·7社說)=18년간의 朴政權도 실시하지 못했고 해방후36년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通禁의 폐지는 개 한 자세의 핵심에는 南北대화의 再開로 한국에대한 北韓측의 비판선전을 봉쇄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할수있다.

▲산께이신문(〃·81·10·16)=한국정부는 대폭적인 南北 1·25社說)=全대통령은 南北회담실현을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할것으로 확신하고있다.

회로 해석된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81·12·28)=全대통령은 통치권을 공고히했으며 안보와 외교정책면에서 레이건美행정부의 기본적 지지를 받고 방체제조성을 지향한 움직임의 一步이다.

▲讀賣신문(〃·82·1·23)=全대통령의 민족통일 제안은 새로운 평화공세라고도 말할수 있으며 이러한 감 행정개혁조치를 발표하고 공무원자리 5백이상을 축소조정하기로했다. 이는「果斷決行型」인 全대통령의 체질을 엿보이게 하는 것이다.

▲더·타임즈(영국·82·1·25)=한국은 작년에 7%의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경제적균형을 회복했다. 全대통령은 또한 政權을 공고히하고 한국국민들이 분명히 바라고 있는 정치및 사회안정을 가져왔다.

▲르·피가로(프랑스·82·1·2)=通禁해제의 결정은 全대통령에 대한 신임의 표시이며 지난2년간의 정부시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이다.

▲디·벨트(西獨·81·7·11)=한국은 지난20년간 집중적인 공업화노력으로 성공을 거두긴했으나 정치·경제적으로 다소고립된국가였다. 全대통령은 이러한 고립에서벗어나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에 대항하려 하고있다.

▲트리뷴·드·제네바(스위스·81·10·19)=한국은 정치적 안정이 계속되는한 금세기말께에는 일본에 능히도전할수있는 活力을 보일것이다.

▲인도네시아·타임즈(인도네시아·82·12·16)=누구나 한국경제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보기드물게 정치적·사회적불안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헤럴드(아르헨티나·81·6·28)=한국의 격동기는 지나갔다. 全대통령의 장래는 확고한 것이다.

▲르·솔레이(세네갈·82·2·22)=한국민들은 그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강인한 노력, 끈질긴 행동력, 국가에대한 투철한 책임감을 중시하고있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⑤

〈題字·金蘇東〉

「고오리야마 先生」

몰래 映畵보다들켜 더욱 가까워져

植民地 교육방식不滿 교단 물러나

내 마음을 설레게한 영화 「東道」는 1920년 D·W·그리피드감독이 만든 미국무성영화시대의 걸작이다. 여배우 릴리언·기시와 주역 남우 리처드·바셀메스의 데뷔작으로이들은후일 많은활동을 했다.

내가 이 영화를 아직도 잊지못하는 것은 작품도 뛰어났지만 관람중 일어난 작은 사건때문이다.

조선극장 어두운 객석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을 때였다.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고개를 돌려 뒤를 보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영어를 맡고 있는 일본인 담임 고오리야마(郡山) 선생과 눈이 마주친 것이다.

나는 놀라면서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아무말없이 미소를 짓고는 스크린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늘방석에 앉은듯 불안했다. 당시 학생은 영화관람하다적발되면 교무실에 불려가 호되게 꾸중듣든고 정학처분을 받았다.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갈까 생각했으나 재미있는 영화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차츰 선생의 존재도 잊은채 영화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다. 고오리야마선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자리를 피해준 것일까? 하숙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해 견딜수가 없었다. 담임선생을 대할 내 얼굴 부끄럽할모습이떠올랐다. 그러나걱정도 잠깐, 나는 영화의 내용과 표현을 분석하며 그 밤을 보냈다.

다음날 몹시 시간이 영어였다. 고오리야마선생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내게 눈길한번 보내지않고 수업을했다. 끝났을 때도 아무말없이 나가 버렸다. 왜 아무말이 없는 걸까. 나는 초조함을 견디다못해 뒤따라나가 그를 불러세웠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의 속죄에 고오리야마선생은 아무도 없는가 둘러본다음 나직이 말했다.

『그런 곳에서 왜 인사를하는가. 못본체 하는 법이지』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만일 다른 일본인선생이라면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고 정학처분을 내렸을 것이다.

고오리야마선생은 미국의 미션계 통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실력파였다. 극장사건이 있기전부터 나의 영어공부하는 자세를 칭찬하고 가끔이 대해주었다.

그가 학교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몇년후, 내가東京에서 대학에 다닐때 그를 만났다. 선배나 친구의 기분이었다. 그는 후견인처럼 나의 어려운일을 해결해주곤 했다.

고오리야마선생은 일본의 학교행정, 총독부의 한국학생에 대한 식민지적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않아 第一高普교단을 스스로 물러났다고 했다.

미국식 민주주의교육을 받아온 그는 光州학생사건때 제일고보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찬양한일본인이었다. 그는 당시 학생들의 용기와 뜨거운 애국심에 크게 감동했으며 한민족의 조국애에 고개를 숙였다고 술회했다. 우리가 동맹휴학을 결의했을때 그는 교무실에서 학생들의 함성에 박수를 보냈다고 했다.

고오리야마선생은 한국학생들의 함성을 「도끼노고에」(時の聲)라고 표현했다. 「적시에 부르짖은 소리」란 뜻이다.

그는 조선극장사건을 상기시키며 高普삼답생에게 영화를 못보게하는 문교정책을 신랄히 꼬집기도했다.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식민지교육행정에 자존심이 몹시 상했고, 염증을 느낀끝에 귀국했다고 실토했다.

그는 시인이기도 하다. 신문에 가끔 시가 실리는것을 보았고 시집도 출간했다. 불의를 증오하는 그의 시는 고발의식을 담고 있었다. 한마디로 의협심이 강한 선생이었다.

회상의 길목에서 돌아보면 그의 이러한 성격이 제일고보 교단에서 밀려나게 한것 같다.

넉넉지못한 주머니를털어 10전짜리 아와모리(泡盛)酒를 마시며 밤늦도록 토론하고, 때로는 東京거리를 거닐며 낭만을 만끽하게해준 고오리야마선생. 한국을 이해하고 제자를 아껴주던 가난한 시인은 생사가 묘연하다. 꿈같은 추억만 남아있을 뿐이다.

◇영화에 심취했던 第一高普 4학년때의 필자.

한국일보 詩壇

黃眞伊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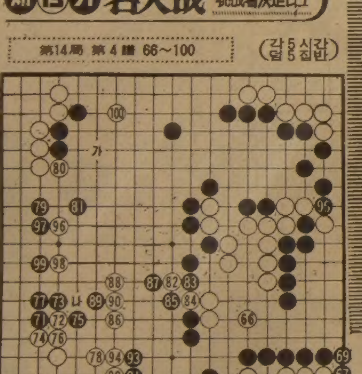
文貞姬

나는 바람인가 봐요.
담도 높은 대궐안엔
문도 많은데
문마다 모두 열어 젖히고 싶어요.
닿는 것 마다
흔들고 싶어요.
지체 있는 뭇별들을
죄다 따고 싶어요.
아니어요.
작은 햇살에도 얼굴 부끄러운
풀잎같은 사람 하나로
높은 벽에 온몸 부딪고
스러지고 싶어요.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4局 第4譜 66~100 (갑5시간 덤5집반)

白(4段)鄭壽鉉〈2勝2敗〉
黑(7段)徐奉洙〈2勝1敗〉



黑, 大勢를 挽回

白66까지 黑세속에서 안정된 결과 국면은 대충보아서도 黑이 5집반덤을 내기 어려워보인다. 말하자면 黑은 공격을 실패한 결과로서 고전이 예상되는 판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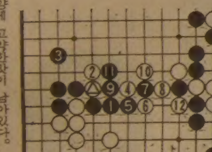
그러나 徐7단은 그걸 내색조차 안하고 例에따라 차분한 진군이다. 좌하귀 黑71이하 白78까지의 형은 이싯점에서 예상되었던 과정. 鄭4단은 白74를 상당히 망설였다고 한다. 「74로는 역시 75자리에 뻗어둘걸그랬다」는 국후감상에대해 대다수기사의 견해는 『본보白78까지도 생각할수있는 형이므로 문제될 점은 없다』는것이었다.

다만 白80은 직접 「가」자리에 두고싶다는 趙8단의 감상인데 鄭4단은 이점을 생각도 안했던 모양이다.

白82가 좋은 수였다. 黑은 기세상 83, 85로 끊었으나 두고보니 黑의모양에 고약한맛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때 무심코 두어버린 白86이 그맛을 없앤 완착. 이수로는 「나」자리를 강하게 젖혀야 했다. 즉 참고도처럼 ⊿표에 대하여 黑1은 白2이하 12까지 관통하는 수가 성립되므로 실전에 비해서 훨씬 유리했던것이다.

白86때문에 黑93까지 선수로 당한끝에 黑95마저 허용해서 대세는 막상막하. 원점에 돌아간 느낌이다. 【一凡】



메아리

稅金有感

몇해전에 미국 大都市의 한신문기자가 자기의 소득자료를 갖추어 이를 稅務官吏·稅務士·변호사등 여러전문가들에게 제시하고 정확한 납세의무액을 계산해줄것을 부탁했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이들 여러 전문가의 해답이 각각 달라서 과연 세법이 어렵고 복잡함에 새삼스럽게 놀랐다는것이다.

3일의 제16회 조세의날, 劉總理는 모든 국민이 좀더 편하고 쉽게 세금을 낼수있도록 稅法을 재검토하고 세무행정을 개선해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제까지 정부편의에 치중한 납세지도·안내를 앞으로는 납세자본위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기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내는 세금의 근거를 아는 납세자가 얼마나 될까하는것을 생각하면서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만에 대해서라도 1년에 한번쯤 과세근거를 알려주는 친절을 베풀수 없을는지, 부탁해보고 싶어진다.

해마다 조세의 날에 표창받는 모범납세자가 몇백명에 이르는것을 보면 국민의납세풍토는 상당히 좋아진것같다. 그러나 더많은 납세자들이 혹은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혹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稅法과 세무행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衛주의 견지에서, 개선을 요망하는것도 사실이다.

내돈과 재산을 세금으로 내기를 좋아할 사람은 설사 그가 金塔훈장을 받은 모범납세자라 하여도 드물것이다. 이렇듯 선뜻안내려는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야하는 세무직은 아마 공무원중에서도 가장 苦役의 직종일법하다. 연극에서는 苦役을 맡은 배우가 그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할때 빛이 난다고 들었다. 그러나 세무관리의 경우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세계에서 세무행정이 가장 잘되는 나라인 英國에는 「세금이 가혹할수록 민주주의가 높은 수준에 있음을 반영한다」는 해묵은 속담이 있고, 역시 모범납세국인 미국에는 「죽음과 세금은 人間의 二大必要惡」이란는 格言이 있다. 우리보다는 稅政이 잘되고있는 한 이웃나라에서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고 들었다. 이런 속담들속에 稅務官吏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脫稅를 일삼는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稅政에 더욱 불만을 토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더라도 세무관리는 「친절」히 「公正」히 세금을 매겨서 납세자를 안내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는 소경의 제닭잡기격인 탈세를 企圖해서 안될일이다.

Sansui

"산수이" 전축 대매출

전축 구입에 최고기회!

150 WATTS POWER
REG. $1829.00
SPEC. $1295.00

110 WATTS POWER
REG. $1650.00
SPEC. $1149.00

130 WATTS POWER
SPEC. $1990.00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STEREO CO.

1961年 軍事혁명에서 維新선포까지

한국일보 (특집판)

그 激動의 日誌

68년 武裝共匪서울침투·72년 南北공동聲明 발표

<8月>
⑨ 동경서 제1회 韓·日정례각료회담 개최, 민간상업차관 2억달러를 3년반에 공여, 개발수출·합작투자 확대를 위한 무역합동위 설치에 합의.

<9月>
㉓ 政府, 民防衛法 草案을 완성, 鄕保隊 防警員, 義勇消防隊흡수.

<10月>
⑯ 經濟企劃院, 남한인구 3천만 突破, 서울市 인구 4백만을 넘었다고 發表。

<11月>
⑳ 與野協商 全權代表 合意議定書에 署名(特調委에 強制 수사권, 政治查察禁止 立法化등)。
㉙ 新民黨의원, 6·8선거후 174일만에 國會 登院。

<12月>
⑬ 서울刑事地法合議部, 東伯林工作團事件 宣命 公判。
㉖ 內務部, 拉北후 歸還한 어부에 水產業法·反共法 적용코 立件토록 지시。

1968
- ◇부동산투기억제세법발효 (1·1)
- ◇무장공비 서울침투 (1·21)
- ◇미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 (1·23)
- ◇蔚山공업단지 기공 (3·22)
- ◇향토예비군 창설(4·1)
- ◇케네디 대통령 피격사망 (6·6)
- ◇三陟·蔚珍 무장공비 침투 (11·4)
- ◇京仁·京水고속도로개통 (12·21)

<1月>
⑧ 牙山 顯忠祠서 도난당한 亂中日記 도범 柳根弼등 6명을 釜山서검거。

<2月>
⑥ 國會 8개항목 安保태세확립決議案을 채택코 大統領에 단호조치 촉구。
⑦ 朴大統領, 慶全線 개통식서 연내에 兵器廠을 완성, 250萬 鄕軍을 무장시키겠다고 言明。
⑳ 閣議, 大統領 주재아래 향토방위군설치법 시행령 의결。

<4月>
㉔ 중요기관과 시설을 자체방위하기위한 청원경찰 정식발족。

<5月>
㉕ 공화당 해당행위를 이유로 金龍泰·崔永斗의원을 제명。
㉚ 金鍾泌공화당의장, 의장직과의원직을 사직, 정계은퇴를 선언。

<6月>
④ 각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 발효에 따라 동시행령도개정의결。

<7月>
④ 국회, 國土統一院을 창설하는 정부조직법중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⑳ 중앙정보부, 荏子島를 거점으로한 北傀間諜27명을 검거。
㉔ 서울지검, 東洋通信편집간부등 4명을 軍機漏泄·反共法위반혐의로 구속。

<8月>
⑤ 軍機漏泄事件 책임으로 崔榮喜국방해임, 후임에 任忠植합참의장。
⑮ 정치활동정화법, 6년5개월만에 시효만료, 舊政治人 70명 모두 해금。
㉔ 中央情報部, 北傀의 재남지하당「統一革命黨」을 적발。

<9月>
⑮ 朴대통령, 濠洲및 뉴질랜드 공식방문동정。

<10月>
⑭ 權문교, 69년부터 대학입학 예비고사제 실시 발표。

<11月>
④ 西海岸과 東海岸, 三陟및 蔚珍지구에 수미상의 무장공비 침투(공비 11명사살)。

<12月>
㉘ 피납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 336일만에 板門店통해 귀환。

1969
- ◇雪嶽山서 韓國山岳會 회원조난 (2·18)
- ◇國土統一院 개원(3·1)
- ◇金壽煥 서울대교구장 추기경서임 (3·28)
- ◇4·8抗命 파동(4·8)
- ◇三選改憲 국회서 변칙통과 (9·14)
- ◇三選改憲 국민투표 실시 (10·17)
- ◇KAL기 (YS11A) 납북 (12·11)

<1月>
⑳ 政府, 한글전용 반대한 忠南大 柳正基교수를 파면。
㉘ 서울刑事地方法院 統一革命黨사건 선고공판서 5피고인에 死刑 언도。
㉛ 京釜線 天安驛서 靑龍號 추돌사건 발생, 41명 사망。

<2月>
㉔ 東伯林공작단사건 관련, 尹伊桑, 金昶七 양피고인, 형집행정지로 석방。

<3月>
⑯ 포커스·레티나 空輸작전 韓美합동으로 廣州벌서 개시。

<4月>
⑧ 國會本會議, 신민당 제안의權五柄문교 해임건의안을 찬89, 부57로 가결(이른바 4·8抗命파동)。
⑮ 美정찰기 EC 121, 東海서 北傀에 被擊추락, 승무원31명사망。

<5月>
⑮ 부실기업체 정리반, 靑瓦臺에 설치, 정리작업에 착수。

<6月>
③ 吉在號 공화당사무총장「개헌안은 연말이나 내년초에 발의될것」이라고 언명。
⑯ 서울법대생200여명 3선개헌 작업중지등 3개항목요구농성。

<7월>
⑰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위 발기인대회개최, 위원장에 金在俊목사。
㉕ 朴대통령 특별담화 통해「개헌국민투표로 신임 묻겠다」고 말하고 당에 조기발의를 촉구。

<8월>
⑨ 정부, 3선개헌안 공고。 신민당의원 농성풀고 가두데모。

<9월>
⑦ 신민당 임시전당대회, 당해산을 결의하고 동시에 신당발기준비위 구성。
⑭ 대통령에게 3선을 허용하도록 하기위한 3선개헌안은 공화당간부들에 의해 표면화 되기 시작해 2월초 공화당 의총의 심상치않은 반발과 汎野의 극한적인 원내외투쟁을 겪은끝에「국회3별관 본회의」에서 변칙통과됨。

<11월>
㉑ 국회, 공화당과 정우회 의원만으로 9·14개헌안 통과후 68일만에 속개。

<12월>
⑪ 江陵발 서울행 KAL기 (YS11A) 승무원과 승객 47명을 태운채 납북。

1970
- ◇日 적군파학생 9명, 여객기납치, 김포에불시착(3·31)
- ◇서울臥牛아파트 도괴(4·8)
- ◇영친왕 李垠 별세(5·1)
- ◇京·釜고속도로개통 (7·7)
- ◇濟州—釜山간 여객선 南榮號침몰로 승객 326명 익사 (12·15)
- ◇정부종합청사 준공 (12·23)

<1月>
⑤ 朴 大統領, 고급공무원·국영기업체장·여당간부등에 호화주택처분 명령。

<2月>
⑭ 피납KAL기 승객51명중 조종사등 12명을 제외한 39명 판문점경유 귀환。

<3月>
⑨ 정부, 일본정부에 대해 조총련계교포의 북괴방문왕래 허용 철회를 촉구。
⑯ 정부, 관악산일대에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부지 확정했다고 발표。
⑰ 서울한강변서 鄭仁淑여인 피살。

<5月>
① 李朝마지막 왕세자 영친왕 李垠, 환국7년만에 낙선재서 별세。
⑫ 한국등반대 金楨燮등 5名, 히말라야 추렌히말봉 (해발7,364m) 정복。

<6月>
② 특수층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譚詩「五賊」(思想界5월게재)筆禍사건 (필자 金芝河·思想界사장 夫琓赫등 구속)。
④ 延坪島西方서 고기잡이船團을 보호중이던 해군방송선 北傀에 납치。
⑳ 國會, 金洸榮의원 (新民黨) 의 營利團體겸직에 의원직 사퇴권토, 22일 의원직상실。 이른바「兼職波動」유발。

<7月>
⑦ 京釜고속도로 개통

<8月>
⑮ 남산1호터널(筆洞 漢南洞) 1년5개월만에 개통。

<10月>
⑭ 忠南毛山서 京西中學 소풍버스와 列車충돌로 學生등 46名死亡31名 重傷。

<11月>
㉕ 丁一權총리, 國會豫決委서「온건한 共產國과 外交관계를 맺는 外交방향을 모색중」이라고 言明。

<12月>
③ 北傀空軍 조종사 朴順國少佐, 미그15戰鬪機 몰고 歸順。

1971
- ◇大邱高法 판사를 자체정화운동 전개(1·13)
- ◇公州서 百濟武寧王陵 발굴 (7·8)
- ◇廣州단지 난동사건 발생 (8·10)
- ◇南北赤 가족찾기 예비회담, 판문점서처음개최(9·20)
- ◇서울시일원에 衛戍令 발동 (10·15)
- ◇大然閣호텔 대화로 167명사망 (12·25)

<1月>
⑯ 日本, 在日僑胞 영주권신청 마감, 신청자 총수 35萬1,955名。
㉗ 金大中新民黨 대통령후보宅폭발물사건 발생。 2月10日 金후보조카 金弘準을 범인으로 구속, 19일 석방。

<2月>
⑥ 韓·美, 주한미군 일부감축·국군현대화·국방상 또는 외상급「연례안보회의」개최에 합의。
⑫ 월간「다리」誌, 70년11월호에 실린「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이 문제되어 필자 任重彬등 3명,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⑰ 日本 삿보로 프레·올림픽에참가한 북괴선수 韓弼花, 서울 사는 오빠 弼聖과 국제전화。
㉘ 각의, 대학교련을 필수로한 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교련반대데모 유발。

<3月>
⑫ 한국군, 서부전선 미2사단지역 20km접수, 155마일 전휴전선을 국군이 전담。
㉗ 미7사단, 주한23년 10개월만에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군감축으로 첫철수。

<4月>
① 각군의 미군사고문단을「주한미군합동군사지원단」으로 통합발족。 각군 사병계급장 전면변경。
② 각대학에 교련반대데모 확대격화, 13일 일부대학 휴강。
⑲ 학계·법조계·언론계인사,「민주수호국민협의회」결성。 공명선거 촉구결의。
㉗ 제7대 대통령선거실시 (투표율 79·8%, 634만2천828표로 朴正熙후보 당선)。

<5月>
⑥ 신민당 柳珍山당수, 지역구 출마 포기하고 전국구1번으로 등록, 당내반발 유발 (진산파동)。 10일 유당수 물러나고 金弘壹이 권한대행。
⑩ 청평호 10m높이 벼랑위 급커브길에서 시외버스 추락, 80명익사。
㉕ 8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투표율 73·4% 공화 113, 신민 39, 국민 1, 민중 1 당선)。
㉗ 서울대문리대·법대·상대·사대에 휴업령。 6월24일 해제。

<6月>
⑯ 국립의료원 인턴들, 처우개선요구코 집단사표。 각 대학병원 연합투쟁으로 확대 (의료파동)。

<7月>
㉘ 서울지검, 서울형사지법 李範烈부장판사와 崔公雄판사를 수뢰혐의로 기소, 구속영장 신청。 29일 서울형사지법 집단사표, 전국판사들 同調,「사법파동」으로 확대, 8월28일 사표철회로 매듭。

<8月>
⑩ 廣州團地 난동사건 발생。 3만여 주민들 분양지불하가 인하등 요구코 파출소 경찰차에 방화。
⑫ 大韓赤十字社「南北家族찾기會談」제의。 14日 北赤十字社板門店서 열자고응답。
⑳ 南北赤十字社연락관, 분단26년만에 板門店 중립국감시위원회 회의실서 첫대면, 신임장교환。
㉓ 仁川앞 實尾島 空軍特殊부대員24名, 경비원 射殺코 탈출, 노량진까지 진출하여 軍警과 交戰끝에 沒殺。

<9月>
④ 서울대학병원 修練醫들, 처우개선 요구코 전원사직。 7일 전국에 波及, 대학병원 기능 마비。
⑮ 派越했던 기술자와 가족400여명, 고용 계약 이행요구코 KAL빌딩에 몰려와 放火·파괴등 집단난동。
⑳ 「가족찾기」남·북 적십자사첫 예비회의 개최。 29일 2차회담。

<10月>
② 국회, 新民黨이 제출한 吳致成內務長官 해임결의안을 可107, 否90, 무효8票로 가결。 共和黨 20여명이 朴正熙 大統領의 否決지시를 어기고 野黨에 동조한것으로 판명되어「4人體制」와「反4人系」의 당내 反目 노출 (제2의 共和黨항명파동)。 5일 吉在號 金成坤두 의원이 탈당 (의원직 상실)。
⑤ 首警司將兵30여명 高大캠퍼스에 들어가 교련반대 농성중인 학생5명 연행。
⑥ 제3차 南·北赤 예비회담 개최。 本會議의 서울·平壤교대개최등 원칙에 합의。

<11月>
⑪ 한국天主教主教團, 不正腐敗·道義타락·貧富差등 시정요구한「共同教書」발표。

<12月>
⑥ 朴 大統領「國家非常事態」선언。
⑨ 派越國軍 제1차 철수부대인 海兵隊先陣, 파월 6년만에 부산착 귀국。
㉗ 국가보위법, 共和·無所屬의원만으로 국회제4별관서 새벽3시에 전격통과, 同日 공포。

1972
- ◇7·4남북공동성명발표 (7·4)
- ◇朴대통령, 경제안정과 성장에관한 긴급명령 발표 (8·3)
- ◇南北赤 첫회담, 平壤서개막 (8·30)
- ◇10·17 대통령 특별선언발표, 국회해산코 전국에 비상계엄선포 (10·17)
- ◇改憲國民投票 실시(11·21)
- ◇첫 統一主體國民會議 대의원선거 (12·15)
- ◇維新憲法 공포, 정치활동재개 (12·27)

<1月>
⑫ 치안국, 민방공훈련 계획을 확정(매월 15일 실시하기로)。

<3月>
⑦ 朴 대통령, 지방장관회의서 최중점 사업은「새마을 운동」이며 새마을 정신을 범국민화할것을 유시。
㉚ 朴 대통령, 육사졸업식서 북한에 4대 군사전략 포기등 5개평화원칙 제시。 ▲大邱日報 자진폐간(창간 19년만에)。

<4月>
⑩ 韓國히말라야 등반대 조난, 한국인 3명등 15명 사망。
⑰ 대일민간청구권 최종 집계, 14만건 39억원(3월20일마감)。
⑲ KAL, 美國로스앤젤레스까지 태평양 횡단 첫취항(7,080마일, 16시간50분)。
㉕ 대법원, 월간지「思想界」의「등록취소처분」。

<5月>
⑩ 출력 2메가와트의 대형실험용 원자로 준공。

<6月>
⑤ 南北赤十字 예비회담 13차 실무회의개최。 남북적십자본회담의제 최종합의。 16일 합의문서 교환。

<7月>
⑲ 南北赤十字 23차예비회담 개최。 1차본회담을 8월5일에, 수행원은 70명선, 자문위원 7명이내등 3개항 합의。

<8月>
③ 朴 대통령,「경제의 안정과성장에 관한」긴급명령 발표。 모든 기업사채동결 (9일 마감한 사채신고 3,507억1,700만원)。 물가상승억제등 5개항도 지시 (8·3경제조치)。
⑨ 군수사기관, 범무부정사건 혐의로 장성1명, 領·尉官장교 11명구속 (민간인 30명구속)。

<9月>
⑨ 문공부, 日本 讀賣新聞 서울지국에 폐쇄명령, 12월6일 재개설허용。
⑬ 남북적십자 2차 본회담 서울서 개최。 합의문서 (3차10월24일 平壤, 4차11월22일 서울개최) 교환코 폐막。
㉖ 新民黨, 珍山系만으로 시민회관서 전당대회강행 (柳珍山당수선출)。 27일 '반珍山연합파, 金弘壹자택서 전당대회개최。

<10月>
⑫ 南北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차회의 板門店서 개최。
⑰ 朴 大統領,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정치활동중지등 현행헌법의 일부효력 정지와 비상국무회의에서 국회기능 대행, 10월27일까지 헌법개정안 공고, 연말까지 헌정정상화등을 내용으로하는 특별선언 발표。 계엄사령관에 盧載鉉육참총장 임명。 계엄사포고1호로 정치활동중지, 대학휴교, 언론·출판·방송의 사전검열등 발표 (10월 '維新')。

<11月>
⑪ 對南·對北방송 24년만에 중지 (2일에 열린 南北조절위 공동위원장 2차회담 결정에 따라)。
㉚ 南北조절위 공동위원장 3차회담 개최。 조절위구성에 합의코 하오에 제1차 南北조절위개최。 12월2일 합의서발표。

<12月>
② 서울市民會館에 큰불 (MBC 10대가수 청백전 진행중 전기과열로 사망52, 부상76명)。
⑮ 維新憲法에 의해 실시되는 첫統一主體國民會議 대의원선거 (대의원 定數2,359명, 立候補5,876명)。
㉓ 통일주체국민회의, 8대 대통령에 朴正熙 후보선출。 27일취임。
㉗ 維新憲法 公布。

◇무리하게 長期執權의 길을연 3選改憲은 훗날 공화당정부의 破局을몰고왔다。 사진은 69년9월 공화당이 改憲案을 深夜에 날치기 통과 시킨데 격분한 야당의원들이 李孝祥국회의장실을 파손, 藏書들이 길바닥에 널려있다。

우리몸에 맞는 便利한 家具를

家具 디자인展갖는 夫守彦교수

◇夫守彦교수

『우리나라의 일반가정에서 부분적으로 나마 서양의 立式家具를 쓰기 시작한것은 30여년도 채못됩니다。 만드는데도 쓰는데도 익숙하지 못했기때문에 가구제작이나 선택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들이 가구를 사들일수있는 경제력을 갖게되었고 또 가구를 선택하는 안목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이단계에서 가구제작자들이 해야할일은 한국인의 신체에 맞는 편리한 가구를 만들어 내기위한 연구작업이지요。 人間工學의 응용 내지도입을 서둘러야한다고봅니다』

2일∼7일 신세계백화점 미술관에서 家具디자인展을 갖는 夫守彦씨(서울大美大조교수)는『아무리 아름다와도 어딘가 불편한 가구는 곧 싫증이 나게되지만, 몸의 구조에 맞춰 편리하게 만들어진 가구는 流行을 뛰어넘어 생명이 길다』고 말한다。

個人으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家具實物展을 갖는 그는 60年代부터 국민학교의 책상·걸상에대한 연구를 해왔으며 家具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 이번 전시회에는 식탁、의자、응접세트、照明기구등 20여종의 가구를 선보인다。

『한국인의 체격에 맞는 가구를 디자인하려면 한국인의 人體치수에대한 통계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자료가 부족해서 항상 아쉽습니다。 특히 의자나 소파등 직접 사람의 몸이 닿는 가구에서는 人體치수가 그 기본이되지요。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의자、소파등은 오래 앉아있어도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오랜 실험을 거듭하며 제작한것 들입니다』

61년 서울大美大를 졸업한 고 대한민국산업디자인展의 추천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했던 그는 10여년전부터 大學에서 공업디자인을 강의하고있는데『최근들어 많은 학생들이 家具분야에 관심을 보이고있으며 家具메이커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늘어나고있어 디자인도 크게 향상돼가고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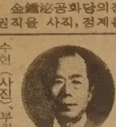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의 가구들은 나무의 아름다움을 살려 木材를 많이썼으며 가죽、毛織등의 천을 함께 쓰고있다。

文化短信

趙演鉉 문학상
文學전분야對象

지난해 11월24일 타계한 평론가 趙演鉉씨를 기념하는 趙演鉉文學賞이 제정됐다。 趙演鉉文學賞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소설 시 평론 희곡 수필등 문학전분야를 수상분야로 한다。 창작생활 20년이상을 지낸 현역 문인들을 수상대상으로 제한한다。 각분야의 상금은 1백만원씩。 운영위원은 위원장 金東里씨등 25명。

작곡가協 회장 금수현씨 뽑혀



한국작곡가협회는 정기총회를열고 신임회장에 금수현(사진)、부회장에 朴[illegible]、金容振、金順愛씨를 각각 뽑았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5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⑱

일환이가 속주머니에서 명함을 한장 꺼내서 자랑스럽게 목이에게 내밀었다。

기름때에 찌든 허술한 잠바속에서 나온 희고 빳빳한 명함이 목이 보기에 빈 모자속에서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요술처럼 신기하고 황당해보였다。

대신상공사 기사주임 유일환。

『오빠 굉장히 출세했네』

목이는 속으로 기사면 기사지 기사주임은 또 뭐람。 적이기 아니꼽게 생각했지만 대강 장단은 맞추었다。

『출세는 뭘…』

일환이는 일단 그만정도로 겸손하면서도 자기를 목이에게 과시할수있다는데 매우 신명이 나보였다。

목이가 일환이에게 명함을 돌려주려고 했다。 일환이가 손을 내저으며 질색을 했다。

『넣어 둬。 필요한 때가 있을거야。 언제든지 그리로 연락하면 나 만날수 있을테니까』

목이는 피식 웃으면서 그것을 작은 손지갑간피에 챙겼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명함이 고작 보일러공 명함이라니。

『참 넌 어디 취직했니?』

『학교야、재수학원이지만…』

『거기서 네가 뭘하게?』

『아이들 시험문제도 내고 점수 매겨서 성적표도 내고 그래』

『그래、그럼 안심이다』

『뭐가?』

『실은 네가 올라보게 세련돼서 난 아까부터 은근히 걱정이 됐었거던』

『내가 세련된 게 왠 걱정이야?』

『혹시 좋지않은데로 빠지고있는 게 아닌가해서』

『좋지않은데라니?』

『몰라서 묻나? 앞으로도 너 돈 몇푼 더 벌려고 인물값 하는데로 빠졌다간 내가 가만 안있을테니 그런줄 알아。 이건 네가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할 고아원 동기로서의 의리니까』

『오빠 매사에 꼭 그렇게 고아원 티를 내고싶어? 지겹지도 않아?』

『지겹다고해서 도망칠수 있는건 아니잖아?』

『왜 못도망친다고 생각해?』

『고아가 어디 남이니? 바로 나지。 사람이 어떻게 나로부터 도망을 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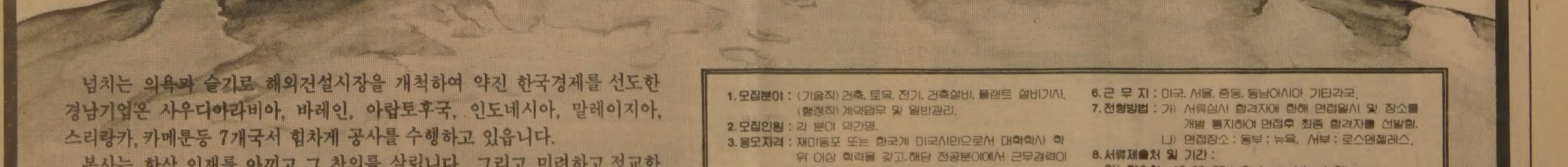
『왜 못쳐。 내가 도망쳐보일테니 오빠 구경만해。 오빠도 내가 재작년에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한건 알지? 이번엔 대입검정고시 차례야。 난 꼭 여대생이 돼보일테야。 오빠가 사장되는것보다 내가 여대생되는게 훨씬빠를걸。 지금 나있는데가 월급은 많지않지만 말도못하게 학구적인 분위기야。 점잖고。 내 시간도 얼마든지 가질수있어。 내 공부방은 또 어떻구? 영화에 나오는 호텔방처럼 근사해。 와보는 아이마다 날더러 출세했다구 은근히 샘을 내는 모양이지만 내출세는 아직아직멀었어。 나는 처음부터 걔네들하곤 달랐으니까。 나는 꿈이 크거던』

『짜아식、으스대긴、실은 나도 샘이 날것같다。 넌 해낼수있을거야。 고아원에서 온갖 궂은일 다하면서도 그어려운 시험을 붙었으니까』

일환이가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두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언덕길을 내려갔다。 그러나 처음 만나 반가와하면서 같이 걸어오를때의 친밀감과 비밀스러운 예감은 언덕위 빈집에 떨구고 오는 걸이었다。 일환이는 그게 서운해서 자주 빈집을 돌아다보았고 목이는 그게 시원해 앞만 보고 또바또바 걸었다。

신세계를 건설할 재미동포를 찾습니다.



넘치는 의욕과 슬기로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여 약진 한국경제를 선도한 경남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토후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스리랑카, 카메룬등 7개국서 힘차게 공사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본사는 항상 인재를 아끼고 그 창의를 살립니다. 그리고 미려하고 정교한 공법으로 수행공사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읍니다.

지난해 자본금을 증액하여 세계적 규모의 건설회사로 뚜렷이 부상한 본사는 5대양 6대주에 걸친 시장 다변화 촉진과 병행, 의욕적인 재미동포를 새가족으로 맞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 (기술직) 건축, 토목, 전기, 건축설비, 플랜트 설비기사. (행정직) 계약업무 및 일반관리.
2. 모집인원 : 각 분야 약간명.
3. 응모자격 : 재미동포 또는 한국계 미국시민으로서 대학학사 학위 이상 학력을 갖고, 해당 전공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으면서 만 40세 미만인 사람.
4. 제출서류 : 이력서(명함판 5cmx7cm 사진부착)…영문, 국문 각 1통. 이력서에는 (1) 성명 (2) 생년월일 (3) 현주소 (4) 전화번호 (5) 출신지 (6) 미국이주년도 (7) 학력 (8) 경력 (9) 응모분야 (10) 근무희망지 (11) 가족관계 (12) 희망급여 (13) 근무조건등을 자세하게 쓸것.
5. 대 우 : 경력에 따라 우대함.
6. 근 무 지 : 미국, 서울, 중동, 동남아시아 기타각국.
7. 전형방법 : 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여 면접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나) 면접장소 : 동부 : 뉴욕, 서부 : 로스엔젤레스.
8. 서류제출처 및 기간 :
가) 접수처…42-22 27th St. Long Island City N.Y. 11101 U.S.A.
응모서류는 윗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되, 편지겉봉에 반드시 "경남이력서"라고 붉은 글씨로 쓸것.
나) 기 간…1982년 3월3일–3월15일까지.
* 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京南企業株式會社

한국일보 (특집판)

1961年 軍事혁명에서 維新선포까지

5·16이후 10年

◇공화당정부가 韓·日國交정상화를 추진하자 모든 야당과 在野및 학생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사진은 65년12월18일 尹潽善 張澤相 金度演 任哲鎬씨등 屈辱외교반대 鬪委간부들이 安國洞 尹씨집에서 철야농성을 끝낸뒤 批准書교환반대및 國恥銘念式을 갖고있는 모습。

1961년
◇5·16 軍事革命 (5·16)
◇張勉내각 總辭退 (5·18)
◇最高會議 議長에 朴正熙 소장 취임 (7·3)
◇第6次 韓日會談 개막 (10·20)
◇朴正熙의장 訪美 登程 (11·11)
◇不正蓄財 處理委·不正蓄財處理를완결 (12·30)

<○속 숫자는 日字>

<5月>
⑯ 5·16 군사혁명, 未明 해병대 공수부대 육군○사단으로 구성된 革命軍은 서울無血進駐에 성공, 陸軍本部에 軍事革命委를 두고 立法,司法,行政의 3權을 완전히 장악。이날하오 軍事革命委는 전국에 非常戒嚴令을 내리고 6個項의 革命公約을 발표。
⑱ 張內閣, 會議열고 非常戒嚴 追認과 政權이양을 의결。
⑲ 尹대통령下野성명 ▲軍事革命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改稱。제1군사령관및예하 군·사단장 일동 혁명지지성명。美국무성 민주주의와 合憲정치위해 원조계속 성명。
⑳ 尹대통령下野번의。 최고회의 張都暎중장을 수반으로혁명내각 구성。 出國금지완화 金融凍結거의 해제。
㉑ 戒嚴司 고등군법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 公告발표。
㉒ 최고회의 모든 政黨·사회단체 해체布告발표。
㉓ 朴正熙부의장 革命軍 조속히 유엔군 산하에 복귀, 적시에 총선실시 언명。최고회의 언론정화를 위한 포고발표。
㉔ 노동쟁의 일체엄금。
㉖ 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모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유엔군사령관에게 복귀 공동성명。美대통령 張의장에게 友好재확인公翰。
㉗ 비상계엄해제,경계계엄으로。
㉘ 최고회의,不正축재처리요강發表。

<6月>
⑩ 農·漁村고리채정리법 공포。 최고회의의 특별법 의결, 7개위설치,상임위장에 朴正熙소장。
㉘ 버거 美대사 張수반과 朴부의장 예방코 韓·美관계 불변을 확인。

<7月>
③ 張都暎 최고회의의장 해임,의장에 朴正熙소장 선출。
⑧ 혁재·혁검부장 임명。
⑨ 張都暎중장등 44명을 혁명주체세력 제거음모로 구속。

<8月>
⑫ 朴의장,62년5월 총선 공표및 정부형태,헌법제정 시기등 중대발표。
㉔ 농어촌고리채 신고기간 1개월 연장。 금융동결 전면 해제。
㉖ 朴의장,부의장 선임문제,韓·日회담문제,해외공관 설치문제등에 관해 언급。

<9月>
⑦ 재건국민운동 본부장 俞鎭午씨 사임。후임에 柳達永씨。
⑯ 부정축재자 34명에 대한 부정취득환수액 72억여圜을 통고。
㉚ 중앙고등군법회의,金聖柱 살해사건 元容德중장에 징역 15년 선고。

<10月>
⑫ 宋首班,한일회담 곧개최언명, 한국 수석대표에 裵義煥씨내정。
⑭ 朴의장 5·16전후를 통해 반국가·반혁명 행위에 관대한 처벌을 발표。
⑳ 제6차 한일회담 개막,첫회담 비공개로 진행。
㉙ 부정축재 조사단,대폭 완화된 부정축재 처리법중 개정법률과 부정축재환수절차법 공포。

<11月>
② 한일회담 일본 수석대표(杉道助) 내한。
⑪ 朴의장, 방미등정 東京 기착, 반공유대 강화등 착일 성명。
⑮ 朴의장,케네디 대통령과의 회담서 한국 군사정부지지를 재확인。
㉚ 정부 과학기술원 설립위 규정및 교수연구실적 심사규정 공포。

<12月>
㉘ 革政,반혁명사건 張都暎,金日煥,李晦暎,宋贊鎬 피고에 사형구형。方滋明,鄭相元,安用鶴,朴致玉,文載駿 피고에는 무기 구형。
㉚ 최고회의 부정축재 처리위원회,부정축재-처리를 완결。

1962
◇年號를 西曆으로 변경 (1·1)
◇경제개발 5개년계획발표 (1·13)
◇국토건설단 창단(2·10)
◇정치활동 정화법 공포 (3·16)
◇尹潽善대통령사임(3·22)
◇제2차 통화개혁(6·10)
◇개헌안 국민투표(12·17)

<1月>
① 政府,연초부터 公式年號를 서력기원으로 변경。
⑬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투자액。3조2천억圜, 연성장률 7·1%)。
㉛ 朴議長, 蔚山工業센터 계획및 기간산업의 工團化에대해 언명。

<2月>
① 서울特別市를 內閣首班 직속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
⑩ 국토건설단 창단식거행。

<3月>
⑯ 정치활동 淨化法案 最高議 통과。
㉒ 尹潽善 大統領辭任(24일 최고회의서 수리)。

<4月>
⑳ 군사혁명1주년기념 산업박람회,景福宮서 개막。

<6月>
① 金相敦·曺仲瑞등 民主黨系 41명,反政府음모 혐의로 被檢。
⑥ 高大生,美軍 린치사건 항의및 韓·美행정협정 촉구데모。
⑨ 긴급통화조치법,최고회의통과。 10일상오 영시기해 현행 환화를 10대1로 절하。
⑱ 최고회의,정부조직법 개정코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장관에 朴林恒)。
㉘ 최고회의,무실력업체 정리등 기본정책 5개항목,세부방침 20개 항목으로된 언론정책을 발표。

<8月>
⑬ 생필품 가격을 동결(밀가루등 13개 품목을 화폐개혁전 가격으로)。
㉗ 民主黨事件 張勉피고에 사형구형,법정 구속。

<10月>
⑫ 각의,행정구역변경안 심의。국민투표법 시행령 공포。

<11月>
㉗ 교통부,KNA의 면허를 취소(30일자)。KAL에 국내선 취항을 허용(12월1일부터)。

63년 第3共和國 출범·65년 韓日협정 批准書 교환

<12月>
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투표율 85·28% 찬성률 78·78%)。
㉖ 개정헌법에 대한 공포식을 시민회관서 거행。

1963
◇정치활동 재개 (1·1)
◇朴의장 민정불참 성명 (2·18)
◇四大疑惑사건 수사경위 발표 (3·6)
◇朴의장 軍政연장 제의 (3·16)
◇第5代대통령선거(10·15)
◇國會議員 선거 (11·26)
◇제3공화국 출범(12·17)

<1月>
①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했던 布告 4호 폐기로 정치활동 再開。
㉔ 南北韓 올림픽委 대표,單一팀 구성협상 시작(스위스,로잔서)。

<2月>
⑱ 朴의장,民政不參을 성명, 5·16혁명 인정·정치보복 금지등 정국수습 9개 방안을 제시。
㉗ 2·18성명(民政不參)을 수락하는 정치지도자·각군책임자등 공동선서。

<3月>
⑥ 중앙정보부 四大疑惑事件 수사경위 發表。△63年 정계활동이 再開되자 證券波動事件, 워커힐사건,回轉撞球 사건,새나라자동차 사건등 軍政下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의혹사건으로 부각。
⑯ 朴議長, 軍政 4年延長을 제의, 이를 國民投票에 회부한다고 성명。

<6月>
㉗ 군재,증권파동피고 10명 전원에 「애국적 충정의결과」라고무죄선고。

<7月>
② 한·일회담 어업전문위서 韓國側,평화선 철폐,40해리 전관수역 설정제의。

<8月>
㉛ 共和黨 전당대회서 朴의장,黨총재와 大統領후보 지명을수락。

<9月>
㉓ 朴正熙 대통령후보「이번 선거는 假飾된 民主主義와 민족적 民主主義와의 사상적 대결」이라고 선거연설。
㉔ 尹潽善 대통령후보「麗順叛亂의 關聯者가 政府안에있다」고 全州서 발언。

<10月>
⑮ 제5대 대통령선거투표 전국서 實施(投票率 84·99%)。

<11月>
㉖ 國會議員 총선거 실시(투표율69·8%),共和黨 압승。

<12月>
⑫ 제3공화국 初代內閣조각(총리=崔斗善, 副總理=金裕澤)。
⑰ 제3공화국 발족,새憲法발효。朴正熙5대大統領 취임。

1964
◇미터制 실시(1·1)
◇對日 굴욕외교 반대鬪委결성 (3·6)
◇三粉폭리, 정치 문제화 (4·1)
◇言論윤리위법안 의결 (8·2)
◇언론법반대 전국언론인대회 (8·10)
◇東京 올림픽대회 개막 (10·10)
◇朴대통령 西獨방문 등정 (12·6)

<1月>
① 정부,수입물자에 대한 싯가역산제실시·미터제 실시。
⑯ 치안국,제주도 일원 18일자정부터 통금을 해제。
㉙ 러스크 美국무장관 내한,청와대서 한·미고위회담 개최。

<2月>
㉕ 한·일어업회담및 어업정치회담 개최에 원칙적 합의。

<3月>
⑥ 전야당,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위 결성코 원내외 투쟁방침 결정。
㉔ 서울의 각대학생 5천명 한일회담 타결 반대 데모。

<4月>
① 3분폭리조사 전모 판명,그내용은 ①제분업자 횡류 폭리 ②美잉여농산물 原麥을 押麥으로 변형해 양조용으로 폭리③제분업자가 설탕가격조작 폭리한것으로 三民會가 정책기조연설에서 폭로。

<5月>
⑨ 崔斗善內閣 總辭職 새 國務總理에 丁一權 外務長官 任命。
⑳ 서울시내 9個大學生 約2천명 서울文理大서 民族的 民主主義 장례식。

<6月>
③ 서울시내 학생 한일회담등 반대 1만여명이 데모,하오8시 서울시 일원에 非常戒嚴 宣布。
㉖ 朴 大統領,國會에 出席코 時局收拾에 대한 特別敎書 발표。

<7月>
㉘ 國會,戒嚴解除 要求 決議案의결,29일 零時期해 非常戒嚴解除。

<8月>
㉛ 閣議,言論法에 협력을 거부한 기관이나 개인엔 일체의 특혜나 협조거부。

<9月>
⑨ 朴 대통령,言論倫理委法 시행 보류,윤리위 소집 무기연기를 지시。
㉒ 日本閣議,對韓 2천만불의 借款을 승인(25일 한국에 통고)。

<10月>
㉛ 越南과 越南지원을 위한 국군부대파견에 관한 협정 체결。

<12月>
③ 韓日회담 재개(제2차 韓日회담 제1차 본회의)。

1965
◇閣議,越南파병의결(1·8)
◇韓日 기본조약 가조인 (2·20)
◇單一變動換率制 실시(3·22)
◇朴대통령訪美 (5·16)
◇李承晩 전대통령 서거 (7·19)
◇越南파병동의안 국회통과 (8·14)
◇서울에衛戍令발동(8·26)
◇韓日 協定批准書 교환 (12·18)

<3月>
㉒ 단일변동환율제 實施。 國防委 依家事 제대대상자에 징집면제 건의키로。

<4月>
③ 한일양국 대표 청구권·교포법적지위·어업의 3대현안합의요강에 가조인코 교섭에 매듭。
⑰ 孝昌公園서「투위」주최로 시민궐기대회 데모군중 파출소 점거。

<5月>
② 朴 대통령,鎭海서 ①학생데모는 애국아니다 ②言論의 무책임 ③지식인은 옹졸하다고 연설。
⑩ 陸軍일부장교 반정부음모사건 적발(元忠淵대령등 7명구속)。
⑯ 朴 대통령 방미,존슨 美大統領및 우탄트 유엔사무총장등과 會談(27日귀국)。

<6月>
⑭ 民衆黨 전당대회(대표최고위원에 朴順天선출,韓日협정 비준되면 의원직 총사퇴 결의)。

<7月>
② 각의,1개전투사단 파월을 의결。각의,국가비밀 누설탐지에 중형을 가하기로 된 비밀보호 보안조사법안을 의결。
⑲ 李承晩전대통령 하와이서 서거(27日 國立墓地에 安葬)。
㉚ 金海서 군인30여명이 난동(金海경찰서 습격,記者 납치)。

<8月>
⑱ 越南파병동의안, 야당의원 불참리에 國會 본회의 통과。
⑭ 韓日협정비준동의안 야당의원 불참리에 國會본회의 통과。
㉖ 서울지구에 위수령 발동,6개 사단병력 서울진주。

<9月>
④ 정부, 고대·연대에 무기휴업명 내리고 학사감사에 착수。
㉔ 데러사건 수사위해 검·군·경합동수사본부 설치(본부장에 金一斗검사)。
㉕ 위수령 한달만에 해제, 진주군은 원대 복귀。

<10月>
⑳ 李東元외무,한국문제 유엔 자동상정 재검토 실리추구키로。

<11月>
⑯ 민중당,楊燦宇내무·金聖恩국방·權五柄文敎 해임건의안 제출。

1966
◇대중립국 적극외교 천명 (1·6)
◇韓日貿易協定 조인 (3·24)
◇張勉 전총리별세 (6·4)
◇아시아 太平洋地域 각료이사회 (ASPAC) 개최 (6·4)
◇韓美行政協定 조인 (7·9)
◇사카린 밀수 정치문제화 (9·16)
◇존슨 美대통령 내한 (10·31)

<1月>
⑦ 韓日양국 신임장 교환(1월14일 金東祚대사, 3월17일 木村四郞七대사)。

<2月>
㉘ 국무회의,駐越軍 증파안을 의결(3월20일국회본회의통과)。

<4月>
㉒ 국무회의,공산권에서 개최하는 국제기구회의,학술회의에 대표 파견,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기구회의에 대한 공산권회원국 대표의 입국허용을 결정(분단국제외)。

<5月>
⑲ 런던서 대한국제경제협의기구(IECOK) 창설예비회담(世銀주최)개최,美·佛·加·伊·濠·日·西獨·벨기에등 참가동의。
⑳ 張基榮부총리 본서 韓獨경제회담,23일 第2嶺南火電 건설지원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6月>
⑨ 朴漢相議員 노상서 피습,15日 테러범 林錫化검거(17일 검찰수사서 경찰조작으로 판명,20일종로서 형사등 5명구속)。
⑭ 아시아·태평양지역각료이사회 회의(ASPAC) 개최(16일폐회)。
㉚ 民衆黨,國家안전유지법안(반공·보안법을 단일화,특례범만 처벌) 國會제출。

<9月>
㉒ 국회오물사건, 金斗漢의원 國會본회의서 국무위원에 오물 살포(24일 의원직 사퇴,구속)。
㉘ 民衆黨, 對日 重機 부정도입을 폭로(수의계약으로 100萬불 손실)。

<10月>
⑮ 張俊河思想界사장「朴 대통령은 밀수왕초」라고 民衆黨 大邱유세서 주장(26일 구속)。
㉔ 越南참전 7개국 정상회담 개최,아시아·太平洋에 관한 선언발표。

<12月>
㉘ 상이군경회원 40여명, 기사에 불만 품고 東亞日報社에 난입, 폭행。

1967
◇여객선 한일호 침몰(1·14)
◇뤼프케 서독대통령 방한 (3·2)
◇李穗根 위장귀순(3·22)
◇朴正熙후보 6대 대통령에 재선 (5·5)
◇文武王 海中陵발견(5·15)
◇7대 국회의원선거 (6·8)
◇九峰鑛山 楊昌善씨 16일만에 구출 (9·6)

<1月>
⑭ 여객선 韓一號,加德島 앞바다서 해군구축함 忠南號와 충돌침몰(100여명 익사)。
⑲ 해군 56함 동해서 北傀 포격으로 침몰。
㉔ 尹潽善 新韓,俞鎭午 民衆黨 대통령후보 단독회담。
㉗ 야당 4자회담서 民衆·新民양당의 통합에 합의。

<2月>
② 共和黨 전당대회,朴正熙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

<4月>
⑧ C46 공군수송기, 서울靑丘洞에추락(사망 58명,실종10명)。
⑳ 蔚山 韓國비료공장 준공(연산요소 33만톤,총 168억 투입)。

<5月>
⑨ 국무회의,국무위원등 별정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합법화 하기위해 大統領·國會議員 두 선거법의 시행령을 전격개정。

<6月>
⑬ 6·8부정선거규탄 학원데모,고대,건대,성대도 휴교。

<7月>
⑩ 제7대 국회,공화당의원 만으로 단독 개원。

◇6面으로 계속◇

海外話題

日、子宮癌 새검사법開發

細胞 自家채취해서 우송

變質방지처리…검사기관에 보내

여성이 가정에서 채취한 자궁의 세포를 검사기관에 우송해서 검진을 받는 새로운 자궁암 검사법이 최근 일본에서 각광을 받고있다.

자궁암의 대부분을 점하는 자궁경부암은 빨리 발견하면 1백% 치료가 가능하지만 수치심으로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여성이 많아 조기발견이 곤란했다.

그런데 새로운 방식의 자궁암 검사법에는 이같은 불편이 없어 지난 75년부터 작년말까지 9만2천명이 검진을 받았고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1백82명중 70명은 암을 조기발견, 생명을 건졌다.

이 검사법은 日本 名古屋에 있는 名古屋公衆醫學硏究所 加藤勝也소장이 고안한 「加藤式自己擦過法」.

특히 자궁암을 검진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자궁입구를 나무주걱으로 가볍게 비벼세포를 채집하고 이를 세포검사원이 조사해서 암을 분별하는 방식을 쓴다.

加藤소장이 고안한 이 기구는 길이 약20㎝로 물총과 비슷하며, 여성이 웅크린채기구를 삽입, 피스톤을 누르면 앞끝에 붙어있는 약 3㎝의 스펀지가 자궁입구에 닿게되어 있다.

피스톤을 6회정도 회전시킨후 꺼낸다음 채집된 자궁세포의 변질을 막기위해 기구에 첨부돼있는 알콜로 채리하고 케이스에 넣어 세포검사원이 있는 기관에우송하면 검사원이 현미경으로이상세포의유무를판단하게된다。

검사결과 암과 전암상태、기타 병의 가능성이 있을때는「要精密검진」의지시를내려산부인과에서검진을받도록했다。 愛知醫大에서 자궁암검진을 받은 1백2명에게 加藤소장이 개발한기구를 다시 응용해본결과 같은관정이 내려져 이 검사법이 의사의 직접검진에 뒤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검사법을 이용하는 사람의 1회부담은 기구값을 포함해 2천5백엔(韓貨7천5백원)이며 이용자를대상으로 한 앙케트에서는 80%가 「편리하다」고 응답했다。【聯】

星港 관광園地건설 現代建設에서 受注

【싱가포르3日AP=聯】 현대건설은 다른 외국회사들과의 치열한 경쟁끝에 싱가포르의 마리나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정부구조물 건설공사를 따낸것으로 3일 알려졌다。

3개의 초호화호텔과 대규모쇼핑센터등이 들어설 마리나 관광단지개발공사에는 총 7억싱가포르 달러(약3억3천3백만 美달러)가 소요될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식계약은 앞으로 2、3주내에 체결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遺傳工學 組合발족 硏究활동 활발할듯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한바있는 韓國遺傳工學硏究組合이 4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발족함에 따라 유전공학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할것으로 보인다。

막걸리·藥酒 美서 큰人氣

우리나라 고유의술인 막걸리와 약주가 美國에 소개돼시판되고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州의 가드나市에 살고있는 在美교포 金仁錫씨는 작년12월말 美연방정부로부터 탁·약주제조면허와 州政府의 판매면허를얻어 탁·약주를 로스앤젤레스의 17개韓人식당과 상점에공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식초공장에도 월간 3천갤런을 공급하고있다는것이다。

美術話題

아파트村에 畵廊이 생겨

盤浦洞 뉴코아美術館 오늘 門열어

開館기념「水彩畵 7人초대전」

전시장85평…江南지역 主婦들 文化혜택

◇4일부터 뉴코아美術館에서 열리는 7人水彩畵展。이것은 江南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본격적인 미술전시회다。

江南區 盤浦洞의 아파트밀집지대에서 뉴코아美術館(銅8 585)이 문을 연다。

뉴코아 쇼핑센터 5층에 들어선 이 미술관은 4일부터 15일까지 개관기념으로「韓國水彩畵7人초대전」을 갖는다。

이 초대전에는 韓國水彩畵協會회장인 朴瑛東화백을 비롯하여 朴玄宰、宋龍、李泰吉、張完、孫庚、崔光善씨등 대체로 40대의 견실한 작가들이 각각 10점씩 출품한다。

이 전시회는 지금까지 江北에서만 열리던 미술전시회가 江南에서도 열린다는점에서 관심의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서울의전시회는 江北에서도 仁寺洞일대와 중앙청주변의 몇몇 화랑이 도맡아 왔으며 여기서 조금 벗어난곳이 新聞會館、美術會館등 대여전시장과 덕수궁의 國立현대미술관 정도였다。

뉴코아美術館은 전시장이 85평으로 도심지 화랑에 못지않은 크기。아파트주민 특히주부들이『가벼운 기분으로 미술을 감상하고 사들일수있는곳』이 되도록하겠다고 이미술관의 경영자인 表美仙씨는 말한다。

表씨는 또『서울의 교통난이 갈수록 심해 도심지의 미술전시를 관람하려들면 교통지옥에 시달려 진이 빠진다。특히 주부들은 비상한 각오 아니면 미술감상을 할수없어 아파트가 밀집된곳에 전시장을 열기로했다」고 말하고있다。

그는 주택지역에 작고도 알찬 전시장과 공연장이 생기는 것은 선진국도시의 특징이라고 덧붙인다。

表씨는 주위의 아파트주부들이 대체로 35~45세의 연령층이어서 육아에서 해방돼있으며 80%이상이 대졸로 취미와 경제수준도 엇비슷하여 이들의 취향에 맞는 예술행사는 큰 공감을 줄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의 수채화전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작가들이 모두 국내화단에서 정평이 있으면서도 작품이 일반인에게 친근감을 주는편이다。

『서울 곳곳에 작은 문화센터들이 들어서 각종 문화행사가 이들을 순회하면서 열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表씨는 말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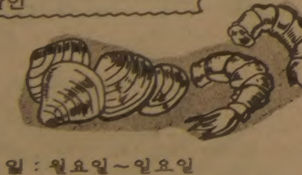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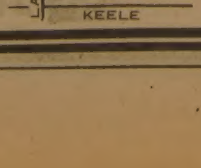
Victoria day에 필요한 Fire Crac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March 8 - March 20 1982

Wilson Pop	24x10 oz.	5.39
Dip League chew	12x59¢	4.59
Hershey peanutbutter cup (crunchy peanutbutter cup)	36x40	8.99
Leaf ball gum prepack (Buy 5 boxes + 1 box)	6x48x10	16.65
Leaf ball gum	27x25	3.79
Dare peg top candy	12x1.29	9.19
Smiles & Chuckles (nut bordeau & butter mallow only)	36x40	8.99
Jelly gum cola fizz	80x.5	2.69
Kisko kids	100x.5	3.15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도미니온·스몰웨어에서 세일즈·슈퍼바이저로 일하게 되었읍니다. 언제든지 찾아 주시면(전화) 감사하겠읍니다.
김 형 철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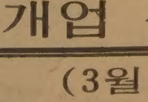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개업 특별 할인

(3월 2일 개업)



미용·화장 전문센타

이 할인권을 갖고
오시는 분에게
10% 할인합니다.
82년 5월말까지 유효.

◎ 매니-큐 화장법
◎ 얼굴 화장법
◎ 얼굴 맛사지법
◎ 피부보호 화장법
◎ HAIR-REMOVAL 보호방법

6093 Yonge St. (영×휜치)
○. Just North of Finch
○. Yonge 센타 플라자내
☎ : 223-7884~5 Mrs. 리

前文教長官 柳基春씨 끝내 永眠

植物人間 상태로 끈질긴 鬪病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5년5개월17일동안 투병생활을 계속해온 柳基春전문교장관(59)이 3일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서울大병원에서 그 오랜세월 입원해있는동안 단한순간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깊은잠에 빠져있다가 이날새벽4시32분, 조용히 눈을감은것.

기나긴 잠 1,898日

◇서울大병원 영안실에 쓸쓸하게마련된 柳基春전문교장관의 빈소。조문객의 발길이뜸한채 가족들이 빈소를 지켰고 李奎浩문교장관등 몇몇인사들의 조화가 놓여있다。

「식물인간」의 투병기는 그어느 질병보다 애처롭고 안스러우며, 「안다사」여부등 「그어느」경우보다 원초적인 문제를 안고있는것이지만 말많기로 전통이있는 「문교행정의 한시대」를 산 柳장관의 오랜 불행은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하기에 충분했다.

柳씨가 쓰러진것은 정확히 지난76년9월14일 상오10시50분께였다. 이날 시민회관별관에서 학도호국단창설 1주년기념식에 참석, 격려사를하고 곧장 南山의 共和黨舍에들러 당간부들과 환담한뒤 돌아와 장관집무실에 들어서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柳씨는 문교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서울大병원으로 옮겨져 뇌혈관파열이라는 진단을받고 하오9시에 서울의대 沈輔里박사집도로 뇌수술을받았다. 수술직후 1주일간은 상태가좋다가 21일하오 갑작스레 새로운 뇌출혈이 시작, 이때부터 「식물인간」상태로 들어갔다.

기록카드 2천5백장 서울大病院史上 최고

치료비7천만원 靑瓦臺·病院서 부담

뇌혈관이 심히 파괴된데다 위장출혈까지겹쳐 위험제수술도 받았다. 그러나 柳씨가 식물인간이 돼버린 결정적인 원인은 뇌혈관파열로 인한 중추신경의 손상이었다. 사지가 완전마비되면서 무의식상태의 깊은 심연속으로 빠져든것.

이후 만 5년5개월동안 의식을 찾은적이 있다면 입원 5개월이지날때쯤 부인 姜貞玉여사(55)의 정성어린 간호로 팔·다리만 약간씩 움직여봤을 뿐이다. 이때 병세가 혹시 호전되지 않을까하고 가족들은 기뻐했으나 병원측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으나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해내는 柳씨에게 가족과 병원은 눈물겨운 간호와치료를 계속했다. 부인 姜여사는 워커힐아파트에서 하루2번씩 아침저녁으로 장죽과 영양가가 고루섞인 미음을 날라 고무튜브로 코를 통해 주입시켰다.

입원중 서울大병원이 신축되자 새병동 5층 신경외과510호실로 옮겨졌다. 가족들이 번갈아 지켰고 또 병원측은 간병인 2명을지정해 柳씨의 뒷바라지를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감기가걸리면 감기약을 먹이고 소화불량상태가오면 소화제를먹이는등 추후로 간호를 계속하며 하지않았다. 柳씨는 이기간동안 오히려 몇가지 지병을 치료하고 완치시켰다. 평소 당뇨병이던 柳씨는 부인 姜여사의 정성어린 식이요법과 의사진의 투약으로 당뇨증세가 거의 사라졌다. 부인은 매일 메뉴를 직접 작성하고 손수 음식을 만들었다. 입원기간동안 감기능다. 이약화되면서 활발하세가 나타났지만 이역시 완치됐다.

가족들은 매일 5~6시간씩 柳씨의 전신을 손으로 주물러주었다. 팔·다리가 굳지않도록 근육을 움직여주는 일종의 물리치료였다.

이런상태가 지난해11월까지 계속됐다. 병세는 호전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악화되지도 않은그런 상태였다.

柳씨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것은 지난해 11월10일 갑자기 심장마비증세가 나타나고 호흡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柳씨는 곧7층 중환자실

눈물어린 간호 "당뇨병도 고쳤는데…"

로옮겨지고 인공호흡기가 부착됐다.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해오던 柳씨는 지난2일하오1시께부터 호흡과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병원측은 산소호흡을 높이고 강심제를 놓고 안간힘을 썼으나 柳씨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부인 姜貞玉여사, 장남 寅碩(35·대신증권대리), 차남 寅柱군(29·사업), 3남 寅旭군(23·학생)등이 흐느끼며 柳씨의 임종을 지켰다.

그동안 柳씨의 입원치료비 총액은 7천50여만원. 입원초부터 10·26사태가 나기까지는 고 朴正熙대통령의 배려로 靑瓦臺가 4천1백98만원을 지불해왔고 그후 지금까지의 치료비 2천8백51만원은 서울大병원이 임상연구비조로 부담했다.

입원기간동안 柳장관에 대한 의무기록카드만도 2천5백여장으로 서울대학교병원사상 입원최장, 입원비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입원중 가족들이 간병인 2명에게 지급한돈은 2천여만원, 가족들은 그동안 전답과 和順에있는 토지를 매각해 이비용을 충당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는4월16일 柳씨의 회갑연을 갖기로 했으나 무산되었다』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柳씨는 22년4월16일 전남和順에서 출생,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를 나와 57년부터 전남대 문리대·법정대 정치학과교수를 거쳐 69년부터 74년9월까지 전남대총장, 74년9월18일 문교부장관에 취임했다. 【鄭在龍기자】

경우내 가뭄 南部 목탄다

降雨量 예년의半 食水難 심각

지난겨울부터 계속된 오랜가뭄으로 大邱·光州·馬山등 주요도시를 비롯, 해안과 도서·광산지방 주민들이제한급수등으로 심한 식수난을 겪고있다. 특히 新安·莞島·南海등 섬지방은 급수선을 이용,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오는10일까지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급수선을 증선해야할 형편이며 井邑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 식수난을 실감케 하고있다.

이때문에 전북도는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 대대적인 물가두기 운동을 전개하고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말까지 내린 도별 강우량을 보면 경남63·8㎜(지난해같은기간 1백3·8㎜) 경북77·8㎜(〃1백7㎜) 전남72·7㎜(1백46·8㎜) 전북55·8㎜(1백26·8㎜) 충남58·5㎜(1백9·9㎜)로 전남북은 지난해 강우량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다.

다행히 우수를 전후해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려 보리·마늘·양파등 겨울작물의 성장에는 다소도움이 됐으나 계속된 겨울가뭄여파로 보리생육에는 약간의 지장을 가져왔다.

▲慶南: 도내에서 식수난이 가장 심한곳은 南海·忠武·三千浦등지의 20여개낙도주민들로 식수저장탱크와 우물들이 바닥나 급수선과 행정선을 동원, 식수를 공급받고있는데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경우 어선까지 동원, 식수를 공급해야할 형편이다.

▲慶北: 보리파종이후인 지난해11월부터 1월말까지 강우량이 평년의 1백7㎜에 비해 30㎜가 부족한 77㎜밖에 내리지않아 보리생육이 부진, 평년 초장 11·6㎝보다 2·6㎝가 적은 9㎝, 그리고 경수는 평년5백14개보다 37개가적은 형편이다.

▲全南: 12·8㎜, 지난주 1·9㎜, 1일 2·2㎜의 비가 내려 생육에 많은 지장을 가져왔던 보리등 밭작물 해갈에는 큰도움을 주었으나 식수난을 겪고있는 光州·木浦·麗水등 남부지방의 식수난 해결에는 미흡했다.

▲全北: 全州지방에는 1일 새벽에도 2·4㎜의 비가 내렸으나 이미 바닥을 드러낸 井邑川은 물론 井邑농조관내 7개 저수지의 해갈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때문에 전북도는 장기가뭄에 대비, 오는10일까지 관내 8백98개소의 저수지를 비롯, 5㏊이상의 영농단지 8백47개소의 저습답에 물을 가두고 1백66개소의 갑문을 밀폐시키는등 총 3천5백만톤의 물가두기운동을 벌이고있다.

女子6명관련 調査說

全大統領 危害음모 한국인 追加立件될듯

【터론토支社3日=柳承珉·趙美來기자】 全斗煥 대통령 위해음모사건의 범인 마이클·제롬의 보석조건으로 접근이 금지된 16명의 관련자중 崔泌熙, 崔甫童(28) 文智鉽등 5명의 한국계캐나다인외에도 더많은 교민들이 이번사건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3일 알려졌다.

변호사의 요청에따른 판사의 명령으로 보도관제된 이들중에는 여자도 6명이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크리스천·프랜시스 반즈와 주범야노보는 최소한 또하나의 다른 대규모사기사건에 연루돼있어 사건은 더 확대되어가고있으며 2~3일내에 한명이상의 한국인이 추가입건될것으로 전해졌다.

16명에 포함된 한국인5명중 한국에서 체포된 文이 한국계 주범이라는 설도있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洛東江연안 耕地정리

慶北, 86년까지 食糧증산 지역으로

【大邱=聯合】 경북도는 총2천6백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낙동강연안 종합개발계획을 최종확정, 총연장 6백64㎞에 이르는 낙동강연안 토지를 식량증산지역으로 개량키로하고 수해방지시설을 비롯, 경지정리사업과 농업기계화등을 본격추진키로했다.

도는 이날상오10시 善山군청회의실에서 金聖培지사주재로 낙동강연안 17개 시장군수회의를 갖고 이계획추진에 따른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도는 이 계획에따라 올해부터 오는 86년까지 국비1천6백77억원, 지방비 3백40억원, 자부담6백53억원등 모두 2천6백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풍부한 수자원과 옥토를 끼고있는 낙동강연안을 식량증산선도지역으로 조성키로한 각종 개발사업을 펴기로했다.

또 낙동강연안 9백12㏊에 새로운 농토를 조성하고 1만9백㏊의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며 목표연도까지 5천8백15개의 미곡 거점단지를 조성, 농수배양및 농업기계화등을 중점추진키로 했다.

交通部 "사고多發택시회사 減車조치"

가처분申請모두認定

大邱高法 "긴급事由"判決

【大邱=聯合】 교통부가 교통사고방지를 위해 부령으로발표한 교통사고 다발운수회사에 대한 차량감차조치의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받아들여졌다.

大邱고법특별부(재판장金碩周부장판사)는 3일 부산北區德浦洞368의8 극동택시(대표 閔병선)와 大邱市西區內唐洞776의37 청구택시(대표 李조호)가 부산시장과 大邱시장을 각각상대로낸 차량감차조치에 대한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두행정기관이내린 행정처분은 이사건에대한 본안소송의 선고가있을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들 행정기관이 교통부령에 따라 관내 운수사중 지난한햇동안 교통사고를 많이낸 이들회사에대해 택시4대에서 7대까지 차량등록을 말소시킨 행정처분때문에 해당회사는 회복할수없는 손해가 생길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긴급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되기때문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부의 사면조치로 교도소에서 풀려난 모범수들이 가족들과 함께 재회의 기쁨을나누고있다。【安養교도소에서 權周勳기자찍음】

家族과 포옹 再會

大赦免 어제 일제히 석방

제5공화국 출범1주년을 맞은 3일 전국30개교도소·구치소및 소년원에서는 정부의 대사면조치에따라 특별사면과 가석방, 가퇴원, 형집행정지등의 처분을받은 수감자들이 일제히 풀려나 마중나온 가족과 친지들의 품에 안겼다.

형집행정지처분을받은 사람등 일부석방자들은 이날상오6시께 교도소문을 나섰고 가석방, 가퇴원자들은 상오10시를 전후해 풀려났다.

전국에서 가장많은 1백96명이 출소한 安養교도소에는 2백여명의 가족·친지들이 이른 새벽부터 몰려들어 석방을 초조히 기다리다가 상오10시께 옥문이 열리자 석방자들을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날 金大中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됐다가 형집행정지를 받은 芮春浩씨(전 국회의원)와 金鍾完씨(전 민주헌정동지회장)도 각각 복역중이던 原州교도소와 江陵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한복차림의 芮씨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3시50분 교도소문을 걸어나와 마중나와 있던 부인 黃敎愛씨(49)와 아들 鍾洪군(23·연세대대학원재학)을 얼싸안으며 재회의 기쁨을나눴다. 그는 또 마중나온 전국회의원 楊淳植, 朴鍾泰씨 등과 악수를 나누며 그동안의 안부를 묻기도했다.

美海兵 전투大隊 東海岸 도착

【浦項=聯合】 「팀·스피리트82」 韓美연합훈련에 참가하는 美해병 제3사단 소속 53대대(대대장 헤이즈중령) 장병 ○○○명이 3일상오9시 동해안 ○○기지에 미군C141기편으로 도착, 해병1사단장병과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날 상오, 日本오끼나와 가데나기지를 출발, 1시간만에 작전지역인 동해안○○기지에 도착한 美해병전투부대 ○○○명의 장병들은 전원 최신장비로 완전무장하고 환영식에 참가, 韓美 주요지휘관과 이곳 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도착신고를 했다.

이날 도착한 美해병 3사단소속 53전투대대는 지난50년 仁川상륙작전때 맥아더장군의 지휘를 받으며 선발부대로 참가하여 용맹을 떨친 지상전투부대이며 지금까지 韓國연합훈련에 두번째 참여하는 최강의 정예부대이다.

◇4千萬年전의 파리化石 4천만년전에 생존했던 파리가 단단하게 굳은 송진에 化石의 형태로 박혀있다.

趙治勳, 3관왕도전 十段位 첫局

【東京3日=宋孝彬특파원】 趙治勳名人·本因坊은 산케이(產經)신문사가주최하는 제20회 十段位결정 도전권을 획득, 3일 오오다케(大竹英雄)10단과 제1차전을 가졌다.

이날 상오 9시 東京뉴·오따니호텔에서 열린 十段戰은 제한시간 각각 6시간이며 5번 승부에 먼저 3번 이긴사람이 10段位가된다.

80년의 名人戰에서 오오다께로부터 名人位를 쟁취한 趙名人은 그후 오오다께와의 대국에서 5승1패의 우세를 기록했다.

멕시코 對韓原油판매 배럴當 2弗인하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도입하고있는 멕시코가 이달에 對韓原油공급가격을 배럴당2달러인하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통보해왔다.

3일 동자부에따르면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는 이달부터 輕質油인 이스무스는 배럴당 35달러에서 32달러50센트로, 2달러50센트를, 重質油인 마야는 배럴당26달러50센트에서 25달러로 1달러50센트를 각각인하했다.

輕質油와 重質油를 섞어들여오고있는 對韓원유공급단가는 배럴당종전의 30달러75센트에서 28달러 75센트로 2달러가 낮아지게됐다.

이에따라 국내유가에는 배럴당 6센트의 인하효과를 미치게된다.

朴尙恩양 살해사건 鄭군 19일 첫 公判

朴尙恩양살해사건의범인으로 구속기소된 鄭載匡군(21·仁川I大행정학과 3년)의 첫 공판이 빠르면 오는 19일 열릴것같다.

이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법 東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梁基俊부장,배석 李鎬元·姜喜夫판사)는 3일 공판일정을 아직확정짓지 못했으나 『19일 또는 26일에 열리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韓·日合作허가申請

釜山에 첫海上觀光호텔

東南亞 최대 萬3천톤급

동남아 최대규모의 관광유람선 한척이 부산앞바다에 영구적으로 정박,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관광호텔로 영업을 하게된다.

3일 교통부에 따르면 한일합작으로 설립된 한일해상관광주식회사가 일본 大島운수소속 1만3천톤급 유람선 사쿠라마루호를 도입, 내부를 고급관광호텔시설로 개조해 부산앞바다에서 해상관광호텔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제출했다는것.

이회사는 일본측에서 사업자금의 70% 한국측에서 30%를 각각출자 모두 70억원을 투자할계획인데 도입예정선박인 사쿠라 마루호는 선령20년 배길이 1백57m 폭21m에 6층건물높이로 가격은 10억엔(한화30억원).

이선박은 앞으로 2백개객실과 오락실 카바레 나이트·클럽 다방 한식·양식·중국식식당 수영장 대소연회장 예식장 카지노등 한꺼번에 9백여명이 이용할수있는 다채로운 시설을 갖춘다.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피로연
— 예 약 환 영 —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 악단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내고향 통닭집
〈오늘의 메뉴〉
전기구이 통닭 오뎅, 가깨우동
곰탕, 설농탕, 김밥
생선초밥, 빈대떡, 만두등.
영업시간 : 아침 10시~새벽 1시
전화번호 : 537—0432
658½ BLOOR ST. W.
대표 : MRS. 리
MANNING BLOOR

BIG SEVEN무역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 : 533—7966 김 영 철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광고 신청은
한 국 일 보 사
● 일 반 광 고 : 최 성 조
● 매매구인광고 : 박 경 욱
533—2361

◇파이팅…善防 4차례의 듀스를 거듭한 美都波와 石油公社의접전。첫세트에서 油公의 鄭成美가 美都波의 강공을 슬라이딩·리시브로 받아올리고있다。

美都波、油公에 진땀

첫세트 大接戰 19대17
邊京子 지친틈타 辛勝 3대2

남녀實業배구1차리그

金星通信이 실업배구 1차연맹전 남자부 우승을차지、6년 정상을 고수했다。安炳萬、李殷洪、車柱鉉、嚴漢柱、姜斗泰、李範柱등 호화멤버로 구성된 金星通信은 韓國電力과 맞서 제2세트서만 접전을 허용했을뿐 3—0으로 여유있게 승리、2연승으로 남자부 패권을 차지했다。韓電은 鄭光浩、崔元默등 왼손잡이 강타자들과 前주니어대표 李萬根등이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한편 여자부준결승에서 美都波는 石油公社와 대결、邊京子의 양손 연타 공격에 허를 찔려 두 세트를 내주는 치욕끝에 石油公社를 가까스로 물리쳤다。

美都波는 첫세트부터 흔들렸다。강공은 물론 金花福의 페인트공격까지 油公의 끈질긴수비에 막혀 첫세트 11—13의 위기에몰렸다。

韓敬愛와 郭宣沃등의 블로킹으로 15—15、동점을 이룬뒤 李云任이 상대수비허점을 찌르는 페인트·토스로 1득점、金花福의 중앙연타가 李明淑의블로킹에 잡혀 1실점、다시 16—16의 듀스가됐다。엎치락뒤치락끝에 17—17。숨막히는 다이를이루다가 점프력이좋은 韓敬愛의 왼쪽오픈공격이 상대코트에 박혀 美都波는 18—17로 리드。

여기서 세터 鄭成美의 좋지않은토스를 邊京子가 세트에 볼을 쳐박아 첫세트를 美都波에 앗겼다。

제2·3세트는 邊京子의 독무대였다。오른손 부상을 당해 강타를때리지못하는 邊京子는 왼손으로 공격하다가 오른손으로 연타를넘기거나 상대수비 헛점을 간파、페인트공격을퍼부어 2·3세트를승리로 이끌었다。

美都波는 제4세트서 9—5에서 9—8까지 추격당했으나 韓敬愛의 활약으로 5점차로 세트를 따냈다。

美都波는 마지막 5세트서 3—5까지 뒤지다가 邊京子의 체력이 급격히떨어지는틈을타 李云任·郭宣沃·廉順등의 활약과 상대 범실을 틈타 연속12득점、승리했다。

金星通信、6년째 頂上지켜

◇제8일 전적

▲여자부 준결승

미도파 3 (19—17 5—15 10—15 15—10 15—5) 2 석유공사

▲남자부 리그

금성 3 (15—7 15—11 12—15 17—15) 1 한국전력

(2승) (1패)

韓國、말聯에 逆轉勝 親善필드하키

한국여자필드하키대표팀은 2일 콸라룸푸르에서 벌어진 말레이지아 여자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2—1로 역전승했다고 선수단이 3일 하키협회에 알려왔다。

지난달28일 끝난 말레이지아 국제하키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이날 이대회 우승팀인 말레이지아와 대결、전반25분 골을 허용했으나 후반20분에 李美玉이 동점골을 터뜨린뒤 27분께 趙起香이 추가골을 따냈다。

한국팀은 3일 콸라룸푸르 선발과 한차례 친선경기를 갖고 싱가포르에서 전지훈련을

예일大學 여자팀 초청 韓美테니스 6일열려

韓美修交 1백주년을 기념하는 명문 예일大여자팀초청 친선테니스대회가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장충코트에서 열린다。앨리스·팀코치가 인솔하는 예일대 선수 9명은 5일하오 내한、6일부터 金壽玉、申順浩、趙恩玉등을 주축으로한 한국선발과 2차전、李廷順、京、金仁淑、吳長順을 주축으로한 한국여자대학 선발팀과 2차전을 갖는다。경기는 4단 2복식으로 진행된다。

◇대진일정

▲6일=예일—실업선발 ▲7일=예일—실업선발 ▲8일=예일—대학선발 ▲9일=예일—대학선발

함께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美 女大와 1勝1敗 여자농구 대표팀

美國에서 전지훈련중인 여자농구대표팀은 지난달 27·28일 오리건州 여대팀과의 2차례 친선경기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고 협회에 알려왔다。

여자대표팀은 오리건大에 78—75로 역전패했으며 오리건州立大에는 77—61로 이겼다。이로써 여자농구팀은 방미 통산전적 5승1패를 기록했다。

대표팀은 앞으로 2게임을 더갖고 오는6일상오 KAL편 귀국한다。

아마복싱 새會長 5일 總會서결정

회장추대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아마복싱연맹은 5일 하오2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확정하게된다。

중고體育특기자 수업료 免除 大邱市敎委결정

【大邱=聯合】大邱市敎委는 중고교 체육특기자들에 대해 새학기부터 수업료를 면해주기로 했다。市敎委는 문교부가 중고교 수업료및 입학금에관한 규정중 수업료감면대상규정을 고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 체육특기자도 수업료나 입학금을 면제해줄수있도록 통보해옴에따라 이를 각급학교에 시달、신학기부터 적용、실시토록했다。

이에따라 大邱시내 공사립중고 체육특기자 2천여명이 연간 4억여원의 수업료 감면혜택을 받게됐다。

그런데 체육특기자들은 지난80년 이전까지는 수업료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나 감사원 감사때 법적근거가없다고 지적돼 문교부가 그때부터 일체 감면해주지 못하도록해 체육특기자들은 그동안 수업료를 모두 납부해왔었다。

경운기를 改造 「딸딸이」 처벌대상안돼, 大邱地法 起訴파기

【大邱=聯合】농민들이 경운기를 4륜차량으로 개조한 세칭 「딸딸이」는 차량으로 볼수없으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으로 처벌할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大邱지법 제1형사단독 金明吉판사는 3일 경북永川郡古鏡面沓谷洞30 金正吉피고인(40)에대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에서 벌금8만원에 약식기소된 金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金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경운기를 4륜차로 개조한 세칭 딸딸이는 차량등록이되지않을뿐만 아니라 도로운송차량법이 규정한 자동차로볼수없기 때문에 이같은 상태로 도로를 운행했다고해서 도로운송 차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팀 가볍게 緖戰 장식

2陣기용… 콸라룸푸르市에 98대82

亞洲 도시대항 籠球

上海市는 홍콩大破

【홍콩=本社국제전화】제1회아시아都市間남자농구선수권대회가 2일하오 홍콩에서 개막됐다。

아시아농구연맹(ABC)주최로 열린 대회는 한국의 서울을 비롯해서 上海(중공)、東京(일본)、콸라룸푸르(말레이지아)와 홍콩등 아시아 5개국의 도시대표팀이 출전했다。당초 출전예정이었던 마닐라(필리핀)는 참가하지않았다。

오는7일까지 풀리그로 패권을 가리는 대회첫날 제1차전에서 서울은 콸라룸푸르를 98—82로 여유있게 물리치고 첫관문을 장식했다。

지난달 쿠웨이트와 바레인으로 원정했던 대표팀이그대로출전한 서울대표는 朴守敎·李忠熙(이상현대)、曺東佑、林正明(이상삼성)、朴仁圭(묶지단)를 선발로 내세워 전반을 64—34로 크게앞선뒤 후반7분께 76—42에서 전원 2진을기용하는 여유를보였다。

이날 李忠熙는 22점、朴守敎는 18점을 뽑아냈고 전반 12분께 발목부상으로 퇴장한 朴仁圭대신 기용된 李珉鉉(고려대)도 14점을 기록하는등 고른 활약을 보였다。

한편 이에앞서열린 경기에서 上海대표는 홍콩을 111—83으로 대파하고 역시 첫 승리를거뒀다。上海선발은 대표선수를 3명거느린 강호。

서울은 4일 홍콩(하오8시30)、6일 東京(하오9시)、7일 上海(하오4시)와 맞서게된다。

◇첫날전적

▲제1차전

서울 98 (34 64 / 48 34) 82 콸라룸푸르

上海 111 (54 57 / 45 38) 83 홍콩

오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열리는 이번대회에서 작년도 여자부 우승자인 黃善愛는 4번시드를배정받아 1회전서 킬리언·가워즈와 맞서게 되었으며 金允淑과 金練子는 부전승으로 2회전에 오르게되었다。

柳尙希는 1회전서 中共의 우·디시와 맞서며 남자부의 李恩求도 中共선수와 1회전서 격돌하게 되었다。

◇한국선수단

▲단장=姜德補 ▲감독=金學吉 ▲코치=金義坤 ▲선수=黃善愛 金練子 金允淑 柳尙希(이상여자) 李恩求 朴柱奉(이상남자)

시내貫通 코스는 그대로 외국選手 신청마감 延期

서울國際마라톤 준비順調

제1회 서울국제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는 오는3월28일 열리는 대회코스를 서울시내일원을 통과하는 시내관통코스로 최종 확정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28일부터 3일간 마라톤코스를 답사、출발지점을 당초 예정했던 汝矣島서울대교 검문소앞에서 KBS광장으로 바꾸고 서울교대신 대방교를 통과하도록 변경했을뿐 당초 도로를 따라 노량진수원지↓盤浦↓現代아파트앞↓永東橋↓蠶室내체육관↓蠶室大橋↓어린이대공원후문↓신답극교정문↓東大門↓鍾路↓西大門로터리↓광화문등 4거리를거쳐 汝矣島서울대교 검문소를 반환점으로하는 종전코스를 그대로 확정했다。

조직위 한 관계자는 『확정된 코스중 黑石등 일부코스의 경사가 약간 급하지만 다른 국제대회에 비해 별로 손색이없는 적절한 코스』라고 밝히고 80년의 서울여자단축마라톤대회때와 같은 혼란을 피할수있도록 교통처리등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회조직위원회는 당초 2월말까지로 예정했던 외국참가선수들의 신청접수마감을 국내선수와 같이 3월10일까지로 연장했다。

조직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2일현재 참가를 신청한 외국선수는 남자23명、여자3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50명선에 미치지않아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참가신청을 해온 선수는 2시간9분27초를 기록하고있는 英國의 빌·로저스와 2시간10분F의 마크·스메트(벨기에)를 비롯、15분이내가 모두 14명、20분이내가 3명이며 나머지는 20분대를 훨씬넘거나 무명의 선수들이다。

여자부서는 2시간25분29초로 세계최고기록을 갖고있는 뉴질랜드의 엘리슨·로가 각광을 받고있다。

한국代表 全英오픈 배드민턴 5일出國

금년도 全英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남녀대표팀이 5일 장도에오른다。

亞洲경기에 메달 5百59개 金銀百84개씩·銅은 百91개

【뉴델리2日AP=聯合】오는11월19일부터 12월4일까지 뉴델리에서 열리는 금년도 아시안 게임에는 금·은·동등 각종목에서 모두 5백59개의 메달이 수여될 것이라고 2일 발표됐다。

이번대회에서는 금·은메달 각1백84개、동메달 1백91개등 총5백59개의 메달이 수여될 예정이다。

그러나 메달수상팀에는 선수각자에게 메달이 별도로 수여되므로 실제메달 수상자는 금·은 각4백49명、동 4백89명등 모두 1천3백87명이 된다。

浦鐵 趙潤玉코치 通津高 축구부로

浦鐵축구팀의 趙潤玉코치가 3일 사임、金浦의 通津종高팀 코치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74년부터 浦鐵팀을 이끌어온 趙코치는 88년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중고의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기위해 고교팀을맡았다고 밝혔다。

韓·印尼 서로勝利장담 데盃 東部에선 내일開幕

【자카르타2日AP=聯合】5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벌어질 데이비스컵 테니스동부지역예선준결승전을 앞두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 승리를 장담했다。

인도네시아선수단 단장인 피트만·하라하프씨는 최근폐막된 방콕테니스대회에서 인도네시아선수들이 결승전에 진출、미국에 패해 우승을놓친 사실을 들어 한국팀을 이길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崔富吉감독도 한국팀이 기후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을지 모르나 주전인 아시아선수권자 金春浩와 全昶大의 선전을 확신한다면서 한국팀이 일찍 온것은 기후에 적응하기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팀은 지난달25일 이곳에 도착、맹훈련에 들어갔다。

OPBF 페더級 타이틀戰 연기

한국권투위원회(KBC)는 오는 7일 문화체육관서 열릴 예정이었던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페더급챔피언 柳煥吉과 동급1위 黃正藏간의 재대전을 黃의 부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6일 열린 양선수간의 타이틀 매치서 도전자였던 柳가 판정승을 거두고새 챔피언이 되자 黃측에서 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KBC에 이의를 제기、두선수간의 재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8-2361

赤字 허덕이는 美프로野球

26球團중 16개팀 흔들려
稅制특혜 없어지면 破産
入場料 인상도 인플레 못따라

스포츠話題

1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美國프로야구도 만성적인 적자로 고전、프로야구를 새로 도입하는 나라에 경종을 울리고있다。야구、농구、아이스 하키、美式축구등 美國의 4大프로구기종목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있는 메이저 리그지만、지난80년시즌에 적자를면한 구단은 26개구단중 겨우 8개뿐。

게다가 최근 美의회가 프로스포츠조직에 대한 특혜를 철폐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메이저 리그의 커미셔너 보위·쿤은 최근 美下院법사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프로야구단의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증언、프로스포츠에 베풀어지고 있는 특혜조치를 계속해주도록 호소했다。보위·쿤은 전국이 즐기는 야구에대한 특혜철폐는 公益에 위배될뿐아니라 불필요한 불안과낭비적인 訟事를일으켜 프로야구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게 될것이라고 역설했다。

1922년 美國의 대법원은 『프로 스포츠는 상(商)행위라고 볼수 없으므로 앤티트러스트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프로 스포츠조직의 특혜를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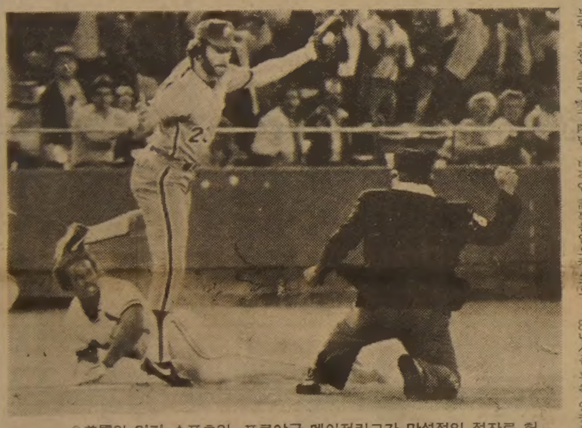
80년시즌 뉴욕 양키즈등 인기있는 8개팀만이 세금을 감당할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뿐 나머지 18개팀의 적자총액이 무려 4천1백만달러(한화 약 2백87억원)에 달했다는 것이 보위·쿤의 지적이다。

보위·쿤이 지적한 가장 큰 적자요인은 선수연봉의 끝없는 인상。프리에이전트(자유계약)가 실시되기전해인 76년 선수평균연봉은 5만2천달러였으나 82년에는 평균 25만달러로 뛰어올랐다。

77년 이래 야구 입장료는 평균 3.75달러에서 4.98달러(한화 약3천5백원)로 33% 인상됐으며같은 기간 물가인상률은 50%였다。82년시즌 야구입장료인상은 소비자물가인상폭의 절반인 5.8%에 불과하며 16개팀은 그나마 인상계획이 없다。

보위·쿤은 과거 75년동안 본거지를 옮긴것은 10개팀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프로야구가 이제까지 부당이득을 취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역사회에대해 봉사해왔다는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야구의 암담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필리즈가 3천1백만달러의 고가에、메츠가 2천1백만달러에、레드·삭스가 1천5백만달러에 팔릴수가 있었는가』라는 존·세이벌링의원의 추궁에 보위·쿤은 이렇게답변했다。『프로야구의 먼 장래를 건 도박입니다』【外紙에서】



◇美國의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만성적인 적자로 허덕이고있다。

볼만한 映畫 晚秋

카메라워크·演出調和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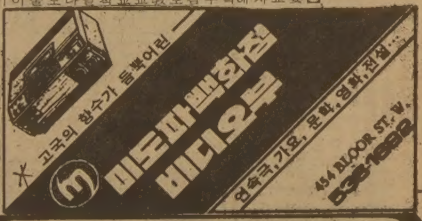
故李晩熙감독이 66년 흑백으로 제작、찬사를 받았고 홍콩에서도 크게 성공했던 작품을 컬러로 리바이벌했다。감독 金洙容。

남편 살해죄로 복역중 특별휴가를 얻은 女囚(金惠子扮)와 살인미수로 쫓기는 청년(鄭東煥扮)와의 짧고도 뜨거운 사랑이 주제。

두사람의 주인공만으로 끌고나가기 어려운 작업을 자로 잰듯 짜임새있는 구성으로 무리없이 영상화한 연출력이 돋보인다。

변화감을 주는 카메라·워크가 연출과 잘 어울린다。남성혐오증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金惠子의 연기는 무난、TV에서와는 또다른 열중을 보여주나 鄭東煥이 따르지 못했다。쫓기는 청년의 심적갈등이나 강박관념、불안같은 것을 충분히 표출해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邦畵로서는 보기드물게 영상미가 뛰어났다。촬영 鄭一成。東亞輸出제작。

(스카라上映中)【훈】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학,영화,전설…

434 BLOOR ST. W. 538-1692

공 고

재 캐나다 한인 축구협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회코저 하오니 여러 체육인과 특히 축구를 아끼시는 분들의 참여와 격려를 바라나이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3월12일(금) 저녁 8 시

장 소 : 크린톤 하우스

기타연락 : 박원모(922—2127)

1982년2월27일

재캐나다한인축구 협회장 : 임 경 진

♡ 주간여성 ♡

인기절찬 판매중!

3월7일자

주간女性

怪力처녀가 하나님의 종 됐다네

—두 子女 낳고 집사된 鐵扇女의 「무술·신앙」

女高 졸업생 위한 취업 情報

林正河 부부의 新婚 일기

승려가 쓴 첫 異色 연극 무대

續·墓女 列傳 프레데군드

「베세트氏병」 환자의 哀訴

10代 未婚母 실태와 문젯점

鄭美朝 가수 데뷔 시절 夜話

〈탤런트 鄭愛利〉

장삼 마스크 쓰고 3년 산 女人의 쇼킹 告白

스타 丁允姬에 대한 엉뚱한 怪루머의 眞相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WORLD BOOK — CHILDCRAFT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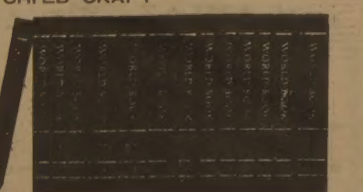
3월16일까지 BIG SALE

$140 Discount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그림,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런던지역 지국장입니다

강 상 권 : ☎ 432—5931(B) 681—6925(R)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드립니다.

THESE TIMES NEED THE KOREA TIMES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청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자동차 매매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 · 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췌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Big Seven
678 Bloor St. W. ☎530-0523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치 과

Dr. Mark Kochman ☎ : 233-9454
(월, 토)9 : 00A. M~6 : 00P. M, (목)9 : 00A. M~9 : 00P. M. 3101 Bloor St. W. Ste. 20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신용조합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 A. Firm Accountant ☎ : 661-1819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옆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인 쇄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종 대
• 주 보 • 명 함 • 청첩장 • 책 자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流星의 賦

<32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⑳

자수(自修)는 무슨말이라도 해서 아들 계남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뜻이 없진 않았지만 가슴속에 간직한 정(情)을 입밖에 내면 솜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란 것이 있는 것이다.

자수는 일어서서 서장(書欌)을 열곤 이곳 저곳을 뒤져 책 두권을 뽑아내어 먼지를 털었다.

『돌아가서 이것을 읽어보라』

자수로선 계남에게 마음껏 베푼 선물이었다. 책 두권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였는데 하나는 오제본기(五帝本紀)이고 하나는 고조본기(高祖本紀)였다.

계남이 자기 방으로 돌아와 먼저 「오제본기」를 펼쳤다. 읽어가는 도중 다음과 같은 대목에 부딪쳤다.

『순(舜)의 아버지는 장님이었다. 순의 어머니가 죽자 후처(後妻)를 맞아들여 상(象)을 낳았다. 상은 거만했지만 순의 아버지는 후처의 아들인 상을 사랑하여 기회만 있으면 순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순은 도망을 치고, 더러는 그냥 매질을 당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계모와 동생을 성심성의 받들었다. 이처럼 아버지는 완고하고, 계모는 부실(不實)하고, 아우 상은 거만하여, 모두 순을 죽이려 했지만 순은 자식된 도리를 잃지않고 아우에게도 우애로써 대했기 때문에 나이 20세에 효행으로서 이름이 높았다. 제요(帝堯)가 누구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이 좋을까 하고 사악(四嶽)에 물었을때 순의 나이 30이었는데 사악은 일제히 순을 천거했다』

이 대목을 읽으며 계남은 아버지의 심중을 짐작하고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어머니는 비록 나를

미워하지만 죽이려하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이어 계남은 「고조본기」를 읽었다.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었다.

『유방(劉邦)의 형수는 유방을 싫어했다. 어느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달라고 했더니 형수는 주걱으로 솥바닥을 두들기며 밥이 없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 솥엔 많은 밥이 있었다. 이처럼 형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방은 언제나 바깥으로 나돌았다. 유방이 천하를 차지했을때 형제의 아들들을 모조리 후(侯)로 임명(任命)했는데 큰 형의 아들만은 제외했다. 아버지가 「백(伯)의 아들에게도 벼슬을 주라」고 부탁했지만 유방은 상을 찌푸리며 「형수의 아들만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계남은 유방이 한나라의 고조(高祖)일망정 도량이 그처럼 좁아서야 쓰겠느냐는 느낌으로 혀를 찼다.

그러나 계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딴 곳으로 옮아 살아야 겠다는 마음만은 변할 수가 없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한양으로 나가 보아야 했다. 이튿날 책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며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어찌 순임금의 지혜와 덕행에 따르겠습니까만 효도의 길에 있어선 순임금께 뒤질 생각은 없사옵고, 큰어머니의 은덕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고조의 위세는 우러러 봅니다만 그 도량이 협소한데 놀랐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혼정 신성의 정성을 다하지 못할 것이 한스럽습니다만 어디에 있어도 마음은 아버지 곁에 있을 것이옵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Toronto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Donuts Shop에서 풀타임 오전 8 : 00~오후 4 : 30 일하실 여자분 구함. 직접내방 바람.
(영×칼레지 써브웨이 안)

Full Time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 598-2546(다운타운지역)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 : 438-1528(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여자분** 캐쉬어 구함
(오후10시~아침8시)
☎ : 691-6768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테크닉 사원 모집
하드 웨어에서 2년이상 경험있으신분 구함
▪금료 우대함 ▪Permanent Job.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608 Bloor St. W. (Bloor×Bathurst Hardware Co.)

Kim's Beauty Salon
☎ : 532-7094
(1)Manager
(2)Hair Stylist Net : $1,500/Mon.

Donuts Shop(11시P·M~7A·M.)
☎ : 743-3822, 222-3877
키프링 × 알덴

3명의 아이들을 돌봐줄 하우스키퍼 구함.
베다스트와 휜치근방. 영어해야 함.
☎ : 665-4122 OR 536-7169

최석봉 씨를
양찬국씨가 찾읍니다.
샌프란시스코(미국)
☎ : 1-415-582-3124, 1-415-581-4211

일요일에 가게 캐셔해주실 분
유경험자 한함. (킹스톤 × 미드랜드)
☎ : 266-6355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 밀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500~$4,000
렌트 : $525 (월) 비데오 머신 있음.
아스킹 : $25,000 + 스탁
관심있으신 분 연락 바람.
443 Kerr St. Oakville. ☎ : 844-6741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가게를 매매할 수 도 있음.
☎ : 759-9224(Ellesmere×Midland)

성업중인 수퍼마켓 매매
냉동식품, 우유제품, 그로서리, 야채류,
과일 그리고 고기(육류)등 취급.
동쪽끝 지역
☎ : 466-8283 (Mr. Mett)

외국인이 경영하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 : 463-3893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렌트 : $515 (전기포함)
☎ : 694-7848

Equipment for Sale
★Shelves for 700 Sq.ft.., 3개의 Frozen food or 아이스크림 캐비넷, 6 ft. 와 5ft. 의 Sliding door냉장고, 아크릴사인(간판), 그외 여러가지.
★ East York에 위치한 900 Sq.ft. Space와 3베드룸 렌트 합니다.
TTC 정거장 바로앞에 위치해 있음.
☎ : 851-3866, 851-1731(저녁7시 이후)

Store for Sale 또는 매니저 구함.
주매상 : $3,500 렌트 : $650
리스 : 4년+5년 Option
현금다운페이 : $7,000(매니저의 경우 2,000Deposit)
☎ : 1-(514)637-6444 (몬트리올 지역)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Convenience Store (900 Sq. ft.)
년매상 : $300,000 (Midland × St. Clair)
☎ : 267-8747(Tom Sherman)

가게와 아파트 포함한 건물매매
교통이 번화한 Parkdale지역
현대식 건물 1베드룸과 2베드룸
물게지 : $71,000(11.25%)
아스킹 : $129,900
Call : Neville Lehrer
☎ : 763-5555, 769-0531
R. Choikan Co. Ltd. Realtor.

바쁜지역의 건물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연매상 : $200,000
Call Cliff or Joe. ☎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Royal Trust Co.

(1)쾌적한 4베드룸 포함한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가게. 관광중심지역
년매상 : Over $400,000
넓이 : 2200Sq. ft. 아스킹 : $149,000+스탁

(1)작은 도시에있는 Convenience Store
매우 깨끗하고 전망좋은 모퉁이에 위치한
4베드룸 아파트(2개의 차고)
아스킹 : $114,900+스탁
가족끼리 운영할수있는 좋은기회.

(3)21 Unit Motel.
면허있는 식당과 별개의 카테지(3베드룸 벽돌집)
Color T. V. 냉·난방장치 갖춤.
평균 객실점유율 : 60%
년매상 : $157,000 아스킹 : $550,000
Royal Trust Coopertaion of Canaba, Realtor.

107 Mississauga St. Orillia, Ont.
Mr. Irven DeGraw.
(B)705-325-6193, (R)705-325-6069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 쿨러, 밀크쿨러, 후로즌, 저울, 과일선반
☎ : 485-9419

벡커 스토아 급매
☎ : 535-3550

방세놓음(월 : $170 독신자원함)
Pape Subway 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도 서 판 매

한국전집 (수입품)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 : 690-2216(Mr. 최)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식 품 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Hi-Fi House (고급 전축 스테레오전문)
4544 Dufferin #19(더프린×휜치) ☎633-2332

Stereo King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새 한 칼 라 현 상 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 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홍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매매 부동산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361-0880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한국일보 안내광고 ＊

19 82 MISS KOREA

미스KOREA선발대회

●후라이보이 곽규석

원맨쇼의 제1인자
익살과 재치의 명사회

●만능연예인 피세영

연극배우·성우·디스크쟈키

특별출연!!

이숙

●인기절정의 가수

달콤한 멜로디
향수어린 정서

●격정적 선율의 신나는6인조악단

=조상국(드럼·섹스폰)·조경희(베이스)· 박정자(기타)·
전미숙(키보드)·김경분(올갠)· 장남홍(싱거)

서 유 미

●히트송"눈이내리네"

71년도 한국가요 신인가수상 수상
뉴욕연예계서 활약중인 육체파 가수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 상품기증 —(미도파백화점 기증)
진 : 미도파백화점 보석부에서
진주목걸이, 반지, 귀걸이 14KGold
선 : 고급화장품 1Set
미 : 고급화장품 1Set
인기상 : 고급화장품 1Set

일시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 시청뒤)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후원 : 한국일보사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 가 신 청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LBS
바 스 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